

박찬국 교수(서울대)
당신은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2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78호 2016년 1월 6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교과 같다.
남을 태우기 전 내 몸을 태운다.

'깨달음=이해' 논쟁 다시 불붙나

수불 스님, 현응 스님 주장 반박한 소책자 발간

깨달음은 의심을 뛰어넘고 의혹을 제거해 확철대오하는 경지인가. 아니면 철저한 사유와 이해를 통해 증득할 수 있을까.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깨달음은 이해를 통해 이뤄진다' 논쟁이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사진〉은 현응 스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소책자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앙종무기관장, 총림, 교구본사, 선원, 율원, 승가대학 등에 2000부가 배포됐다.

수불 스님은 소책자에서 현응 스님이 저술한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와 〈'깨달음과 역사, 그 이후' 반론에 대한 답변〉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 비판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현응 스님의 '조계종 명칭 변경' 주장에 대해서는 종단의 종지인 '전법도생 직지인심'을 들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이자 고준함이며, 시대를 뛰어넘는 바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조 스님들이 세워 놓은 깊은 뜻을 헤아려 후배들이 실현하려고 노력해야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구실 아래 쉽사리 이름을 바꾸려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불 스님은 '깨달음은 이해'라는 현응 스님의 일련 주장이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불이법(不二法) 차원의 깨달음'은 현응 스님이 말하는 '이법(二法) 차원의 이해'와 범주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깨달음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은 '상을 여읜 것(깨달음)은 상을 가진 것(이해)'이라는 무의미하고 모순된 주장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대적인 '이법'의 논리로 '불이법'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다"며 "혜안 이하의 안목으로는 '마음'이 모호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근본에 의심을 품고 실참을 통해 안목을 열어야지 '연기관과 공성'을 이해하는데 만족한다면 불조의 혜명을 바로 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깨달음은 진화한다'는 현응 스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주의 오류를 지적했다. 수불 스님에 따르면 '깨달음'은 '불생불멸의 중도불이법'이고 '시대적 진화'는 '생멸이 이어지는 생멸이법'이어서 상호 범주가 다르다는 게 주요한 이유이다.

현응 스님이 주장한 화두의 의미에 대해서도 수불 스님은 요목조목 비판했다. 현응 스님은 자신의 글에서 화두를 '이야기와 대화', '사유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깨달음 '不二法', 이해 '二法'
함께 논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

조계종 종명을 버릴 게 아니라
종지에 더 충실해야 발전 있어
간화선 부흥, 한국불교의 미래

이에 대해 수불 스님은 "화두를 '사유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면' 그 화두는 즉시 사구(死句)가 된다"면서 "화두를 자기 문제로 '의심화'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활구(活句)가 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는 공허한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화선은 조사선에서 형성된 법거량이나 선문답이 공안으로 전제돼야 하며, 화두는 수행자에게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지고,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활구 의심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간화선은 학인으로 하여금 화두에 집중케 하고 본래면목을 밝힐 수 있도록 장치된 최상승 수행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수불 스님은 '한국불교 현대화'에 대한 총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각론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시대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조계종' 종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지를 보다 충실히 하여 '돈교법문'을 대중화 ·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인류 최고의 정신문화유산인 간화선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를 비판해야지 간화선법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뿌리를 튼튼하게 살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의 근본은 '법안과 불안의 안목'"이라며 "불법에 대한 안목을 여는 가장 효과적 수행법은 한국불교가 보존해온 간화선이다. 간화선의 부흥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랍 30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개최한 모습. 사진=윤호섭 기자

위안부 한·일 합의 졸속 처리 논란 확대

구랍 28일 한 · 일 정부가 도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나눔의집 등 종교 · 시민사회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이 대독한 아베 총리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협상안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법적 배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 여론의 이유다.

〈관련 기사 3면〉

글=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목각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1-389-5357

2016 현대불교 달라집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변화

현 → 현

기존 윤신문체 / 새로운 산돌 신문제비체

신문 서체 변화

현대불교신문이 서체와 편집을 변화시켰습니다. 서체와 크기를 조정해 좀 더 편안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편집에 변화를 줘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Card News〉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뉴스'가 신년부터 서비스 됩니다. 요약된 기사 정보와 이미지를 결합해 불교계의 소식과 정보를 독자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 합니다.

다양한 지면 연재로 볼거리 확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장인 지안 스님이 〈대승기신론〉의 정수를 지면을 통해 강의합니다.

최선일 박사의 〈佛母烈傳〉



불자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성보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그 옛날 불모(佛母)들의 면모를 살펴 사찰에서 접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인도의 논사인 제바라보살이 저술한 〈대장부론〉. 시인 도정 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해석한 〈대장부론〉에서 보시의 중요성을 만나보십시오.

김준호 교수의 〈니까야서 길을 묻다〉



니까야에는 부처님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김준호 울산대 교수가 취업과 학업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니까야를 통해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재학 문화재 전문 작가의 〈그 절집의 빛〉



전국 곳곳의 절집서 별처럼 빛나는 오래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불보살, 장엄미술, 전통건축, 석조조형, 불교의식 및 조형, 소나무 같은 생명문화재일 수도 있습니다. 선재동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듯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배종훈 작가의 〈명상카툰〉



불교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배종훈 작가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禪 카툰'의 새로운 장르를 연 배종훈 작가가 그리는 '명상카툰'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양호 교수의 〈禪과 현대미술〉



"유럽의 현대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점은 불교와 禪의 정신에 있다." 현대 미술가 윤양호 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가 풀어내는 새로운 불교미학적 패러다임인 '선조형예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승미 작가의 〈가족이 읽는 창작 불교동화〉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부문과 오늘의 작가상을 석권한 우승미 작가가 가족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불교동화를 선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은 경전은 새해 최고의 선물!!

깨달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은 삶의 나침반, 인생의 보배

불교경전 시리즈

●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곧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_ 값 15,000원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지음_ 값 15,000원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지음_ 값 23,000원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감 지음_ 값 15,000원
법성게를 읽는 즐거움 ■법상 지음_ 근간

콘사이스 불교사전



– 불교 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책

– 한 권의 사전을 통해 불교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다.

■김승동 편저_ 값 45,000원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품위 있는 선물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민족사의 책 5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정승석 지음_ 값 10,800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는 길. 버리고 비우고 낮추다 보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마음의 비밀 – 아뢰야식의 발견
■요코야마 고이치 지음 · 김명우 옮김_ 값 10,800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긍정적인 삶이 된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마음을 변혁시키는 방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



붓다의 인생코칭 –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해지는 법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윤한 옮김_ 값 10,800원
직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붓다의 코칭을 받아라!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필독서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냥의 수행일기
■월호 스님 · 배종훈_ 값 16,500원
참선과 카툰의 만남으로 의미에 재미를 더하다! 참선 이야기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냥'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준다.



빛나는 해피불 – 운명을 바꾸는 빛
■동휘 스님_ 값 16,200원
동휘 스님의 생명력 넘치는 글과 만다라! 그 힘찬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이다.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미군 오폭’ 곡계굴 희생자 위로

천태종 · 단양군 구랍 27일 구인사서 첫 합동 천도재

천태종과 단양군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영춘 곡계굴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천도위령대재를 열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단양군(군수 류한우)은 구랍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서 단양 곡계굴 참사 희생자 천도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천도재는 천태종과 단양군이 희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유족들을 위로하고 단양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단양 곡계굴 참사는 1951년 1월 20일(음력 12월 12일), 한국전쟁 당시 단양 영춘면 곡계굴로 피신한 주민들과 피난민을 북한군으로 오인, 미 공군 전투기 4대가 폭탄 투하와 기총사격을 가해 약 360명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천태종 스님들과 희생자대책위원회, 단양군은 매년 음력 12월 12일에 곡계굴 앞에서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약식으로 지내왔으나 3시간 이상의 정식 천도재로 법당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도재 봉행에 앞서 조병규 희생자대책위원회 대표는 “매해 합동위령제를 지내왔고 그때마다 구인사 스님들께서 동참하셨다. 이번에 특별히 천태종서 뜻을 모아 구인사에서 정성으로 천도재를 지내주시니 유족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천도재는 천태종 스님들과 희생자 유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련 △대령,관욕 △신중작법 △사성례 △상주권공(천수경, 복청게, 다게) △삼보통청 △지장청 △중단퇴공 △관음시식 △소대(회향) 순으로 열렸다.

한편 단양 곡계굴 참사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172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확정 받았으나 아직 후속조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병규 대표는 “구인사에서 봉행해 주신 이번 천도재는 무관심한 정부가 곡계굴 참사에 대한 현 상황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직 연고자를 찾지 못한 200여 명은 단체로 매립돼 있어 안치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2008년에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172명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과 단양군은 구랍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서 단양 곡계굴 참사 희생자 천도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과거사 정리·성찰 본격 ‘START’

사부대중위, 구랍 28일 ‘50년사 성찰’ 세미나

조계종의 근현대 200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한 과거사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공동위원장 도법, 이하 사부대중위)’는 구랍 28일 전법회관에서 ‘조계종단 50년의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종령 기구로 출발한 사부대중위가 처음으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로 향후 과거사 정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조계종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변화상을 분석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사를 △1895년~1945년 방황과 모색의 시기 △1945년~1960년대 종단 정체성 확립 시기 △1970년대~1980년대 권력 예속의 시기 △199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

조 교수는 “한국불교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조선조 500년을 제외하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난 100년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어온 것이어서 체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만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광복 이후 봉암사 결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렸다. 조선 500년간의 침체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친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의 방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봉암사 결사이지만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확고한 기준이 반대로 다른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1954년부터 이어진 비구 · 대처간 분규 또한 통합종단 조계종의 출범으로 막을 내렸지만 종단 분규에 조직적 폭력과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후유증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에는 불교의 변화를 바라는 출재가자들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개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지난 100년간 식민지와 분단, 전쟁, 혁명, 쿠데타, 산업화, 민주화 등 어렵고 힘든 역사의 과정에서 한국불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업보들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우리 앞에 여전히 놓여있다”면서 “이런 위기감, 지난 100년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가 시작된 만큼 이 결사는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오늘날 불교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으로 더욱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과거사 정리 원칙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분과별 정기 회의 및 공개 간담회 등을 통한 과거사 정리, 1994년 사면자 관련 방침 및 종단 개혁 계승 등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부대중위원회의 활동이 특정인 위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명호 사부대중위원회 과거사 정리분과 간사는 “위원회 목적은 관련 인물에 대한 개별조사와 판단이 아니라 조계종단이 걸어온 200년 발자취를 공동체의 화합과 개혁이란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므로 이 목적에 부합해 필요한 경우에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공동위원장 도법 스님은 “사부대중위원회는 과거를 잘 정리하고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 회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생산적 논의로 불교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는 구랍 28일 전법회관에서 ‘조계종단 50년의 성찰과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성택 교수 “자성 관점서 살펴야”
노력 있었으나 근본적 개혁은 안돼
종단 과거사 정리 원칙도 첫 공개
‘종단 발자취 비판 · 성찰’ 주요 관점

불교 종립대학 정시모집 성황 이뤄

동국대 4.93:1, 금강대 불교학부 3.5:1

불교계 각 종립대학들이 정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국대는 전체 1374명 모집 중 6777명이 지원해 최종 4.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4.74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연극학부로 28.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외에 농어촌, 특성화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졸 등 재직자전형은 57명 모집에 245명이 지원, 4.3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동국대 측은 “현재 학교가 진행하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정시 경쟁률 4.45대 1의 경쟁을 보였다. 773명 모집에 3,435명이 지원한 것이다. 한의예과가 23.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금강대는 평균 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불교문화학부는 3.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불교문화학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상승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 교수들 ‘지식인 포럼’ 구성한다

구랍 28일 1회 불교미래포럼
상반기 창립법회 계획

불자 지식인들의 공동체가 출범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는 구랍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불교미래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창립법회에 앞서 처음으로 마련된 불교미래포럼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식 출범하는 불자교수들의 논의의 장이다. 한국불교의 다양한 현안을 의제로 설정해 불자지식인들의 공론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익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학생 불자 동아리 활성화와 함께 불자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각 권역별로 교구신도회가 구성된 중앙신도회, 불교 각단체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권역별 대학을 함께 연결하고, 교수불자연합회를 넘은 각계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교불련이 신도단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불자교수, 불자지식인들이 각 현안에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체계를 정비해 창립법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2대 회장을 맡았던 류종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등 고문들과 황신숙, 김덕립 교수 등 전국 불자교수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대근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당선자와 대한불교청년회 임원진도 참석했다.

포럼에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연사로 나와 ‘종교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광 스님은 이날 “현재 종교도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출재가를 넘어 뭇중생의 권리까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구랍 2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불교미래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평화감수성’ 찾아 양구 민통선으로!

민추본 9일 22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흥, 이하 민추본)는 1월 9일 22차 월례강좌로 ‘새해맞이 한반도 평화기원 양구 민통선 순례’를 실시한다. 오전 8시 조계사 앞에서 출발해 춘천 청평사, 양구 펀치볼, 을지전망대, 평화의 댐 등 둘러볼 예정이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접경지역 해설과 분단문제 관련 현장 강의도 진행된다.

민추본 측은 “남북접경지역과 민통선 지역을 둘러봄으로써 분단 현실과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평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2016년에도 시의성 있는 주제와 남북 간 이슈를 다루는 월례강좌를 이어갈 것이다. 불자들이 민족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2016년 1월 10일(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A홀 (신관)

1부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법 어 : 고산 대종사 (쌍계사방장스님)

• 대 상 : 조계종 사찰 신도로 3인 1조 구성 (청소년 1인 필히 포함)
응원상이 있으며, 참가사찰은 반드시 응원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가 비 : 팀당 3만원(참가비는 포교기금에 사용)
신청서 및 예상문제는 다음카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예상문제집이 필요한 사찰 및 단체는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부산시교육감 상이 주어집니다.
• 입상자 외 응원상 및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051)501-7554

◆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후원안내
CMS 후원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30-7548-0 (예금주:사단법인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추진 '이상무'

2016년 정부 불교 예산 어디에 쓰이나?

새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5조 4천 948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불교계에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 템플스테이 운영과 시설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정부 예산이 집중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반영된 문체부 예산은 6백 30여억 원이며 이중 10.27법난 기념행사에는 2억 원이 배정됐다. 종교를 초월해 10.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불교계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알리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248억 원에 책정됐다. 관광산업과 이상무 사무관은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에 110억 원, 시설보수 지원에는 138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지난해 128억 2천 7백만 원서 21억 원이 증가된 149억 7천 2백만 원으로 늘어났다.

신용선 종무실 사무관은 "사찰 보수의 경우에는 해당사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은 전통사찰 154곳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0.27 법난 기념관 630억 원
템플스테이 248억 원 책정돼
방재 · 기록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 문화유산 보존사업 추진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은 1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12년과 같은 금액이다. 여기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됐다.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사업에도 50여 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에 18억 원, 불교전통문화 발굴과 전승사업에 12억 7천만 원,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을 위해 5억 원, 밀교총람편찬사업에 5억 원, 호국의 승군 연구에 3억 2천만 원(지속, 서산대사 제향포함)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조감도.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역사문화관광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 6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에는 총 50여억 원이 투입된다. 이중 불교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2억 원, 진각종 70주년 기념사업비에 2억 원, 팔공산 승시 행사 운영비에 3억 원, 인성교육 지원비에 3억 원 등이 책정됐다.

신용선 종무실 사무관은 "이번에 책정된 불교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통문화유산 분야와 불교 분야 등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며 "순수한 불교계의 지원 예산은 예년에 비해 1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南北불교 "합심해 민족단합 이끌자"

조계종 · 조불련, 구랍 30일 '신년인사' 전달

남북 불교계가 병신(丙申)년 새해를 앞두고 서로에게 신년 인사를 건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구랍 30일 서신을 통해 '2016 새해인사'를 주고받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2015년은 남북불교도 사이에 연대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높아진 뜻 깊은 한 해였다"며 "민족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 교류와 연대가 더욱 활발해지는 새해가 되도록 서로 합심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강수린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불교도들의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통일의지를 다시 굳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질 새해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교도 사이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계종과 조불련은 2015년 3월 남북대표자회담(중국 심양), 10월 금강산 신계사 8주년 법회, 11월 남북종교인 모임(금강산)을 갖는 등 3차례 걸쳐 만났다. 박아름 기자

월간 〈불광〉 리뉴얼 '눈길'

1월호부터 연재 등 지면 디자인 변화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이 2016년 1월호(통권 495호)를 기점으로 잡지를 리뉴얼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집, 신규필자 연재 등 내부 구성부터 표지, 디자인, 종이 재질까지 전면 새로이 꾸몄다.



'독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불자로서 나와 세상에 대한 깊은 사유의 동기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감성으로 공감하고, 이성으로 사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규 코너로는 불교계서 시도된 적 없던 사진인물 다큐 '어의운하(於意云何)', 원로 및 중진 · 중견 사진작가들의 사진으로 담은 불교 '천개의 눈', 방방곡곡 내려앉은 절집을 이광이 선생의 맛깔나는 글로 만나는 '이광이의 절집 방랑기' 등이 각각 신설됐다. 또한 농부철학자로 알려진 윤구병 선생, 불교적 경영의 방법을 소개하는 바른경영연구소 이언오 소장, 불교와 생태의 만남을 모색하는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최원형 소장, 자녀를 통해 불자의 마음수행을 돕게 해줄 마음자람원 김남선 대표가 신규 필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덧붙여, 신행 생활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보현행원품〉 사경지를 부록으로 실었다. 〈보현행원품〉은 대승경전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화엄경〉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다. 한문으로 사경할 수 있게 했으며, 한글 해설을 달아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1월호는 '서분'과 '예경분'으로 시작했으며, 매달 진행되는 사경지를 모으면 〈보현행원품〉 전체를 사경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우수전법도량 16곳 표창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서 2015 우수전법중심도량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과 새터민, 장애인 포교에 매진하는 사찰 200여 곳 중 우수 사찰 16곳 지도법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서울 영화사(지도법사 지성 스님) △서울 법장사(지도법사 여암 스님) △서울 옥천암(지도교사 원명심) △서울 통해사(어린이법회팀장 정재민) △의정부 회룡사(지도법사 법찬 스님) △김포 금정사(주지 명훈 스님) △예산 수덕사(지도법사 상준 스님) △전북불교회관(과장 이영배) △청주 용화사(신도회 문화원장 손경화) 등 9개 사찰이 송묵 스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수 사찰로 선정된 화성 용주사와 속초 원각사, 영주 포교당, 창원 봉림사, 창원 정법사 마산 포교당, 밀양 용궁사, 순천 송광사 등 7개 사찰은 이날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이들 16개 사찰은 표창장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피아노, 스피커 등을 부상으로 받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누적 성금 100억원 돌파

리퀘스트 방송 시초 24년간 전파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이 구랍 25일 1272회를 기록하며 누적된 성금규모도 100억원을 돌파했다.

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구랍 29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명실상부 불교계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1991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거룩한 만남'은 방송 횟수뿐 아니라, 지난 24년간 청취자들의 성금 약 100억원을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라디오 모금방송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룩한 만남'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청취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공익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내 리퀘스트방송의 시초로서 IMF 경제위기의 상황에도 불자들의 자비심과 응원으로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가피행을 펼쳐왔다.

한편 불교방송은 매월 초 서울시 마포구 다보빌딩 3층법당에서 지난 한 달간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한다. 신성민 기자

"韓日 협정, 피해자 빠진 졸속 합의"

나눔의집 등 종교 · 시민사회계 반발 '고조'

한 · 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은 협상과정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피해 배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이 논란 대상이다.

종교 · 시민사회계 단체들은 이 협상안에 대해 △대독 사과에 그친 점 △법적 배상 등 후속조치 논의가 배제된 점 △소녀상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눔의집(이사장 월주) 등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과 범죄 주체가 일본정부란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 대상도 모호하다. 도저히 진정성이 담긴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는 "한일 간 우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할 과제지만,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쫓기듯 해결해선 안 된다. (합의문의)모호한 표현들은 벌써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 위엄 유지라는 점서 우려하는 점을

대독 사과, 진정성 없어
법적 배상 문제 거론 無
"'소녀상' 이전 절대 안돼"

인지, 관련단체와 협의 등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표명한 데 대해 "소녀상 이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협조하겠단 뜻이 아니냐"며 여론 반발이 빗발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들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수백억 원 예산의 위안부 지원 재단이 아닌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및 법적 책임 이행"이라면서 "정부의 졸속합의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던 시민들 노력이 폄하됐다. 정부는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일 정부가 각각 "(협상안 이행을 전제조건으로)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향후 각 정부는 UN 등 국제사회서 동 문제에 대해 비난 · 비판을 자제한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노력을 물리적으로 자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양 정부 간 합의가 그간 민간 노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특히 민간이 설치한 소녀상 이전을 두고 정부가 관여하겠다 말한 것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겠단 말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의 이옥선(87)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식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제1종주거지역 및 2차선 도로에 접한 –
〈매각지 인접 시세가〉 1,500~3,000만원 (공시지가: 700~800만원)
사찰 농원으로 최적합한 땅! – 과천토지 매각!
강남 부자들 주목하는 과천 명품토지 –
4호선 선바위역 500m
3.3㎡당 110~120만원
(분양단위 : 330㎡)

매각지 내 과수원(일부필지)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수혜지 예상지–과천"
본 매각지는 강남 15분 거리의 4호선 선바위역 역세권에 입지하며 제1종주거지역 2차선 도로와 고급주택 취락지구에 접해 있는 생태주거지로 주목받는 지역입니다. 현황상 경사도가 낮고, 배나무밭 등 보존가치가 매우 낮아 그린벨트해제가 예상되는 도심지 임야입니다.

매각지

매각지
• 매각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지목 : 임야)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시행사 (주)경기토지개발 (소유권 이전 책임등기 : 임채일 법무사)
■청약금: 100만원 / 농협 355-0038-4227-43 (주)경기토지개발
청약신청 (일요일 공휴일 상담) 02)2058-0132

일 주 문



일붕문학상 시 부문 수상

대우 정읍 내장사 벽력선원 회주 스님은 구랍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회 일붕문학상 시상식에서 시 부문 상을 수상했다.



베트남 태아 영가 천도재

탄웅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월 2~3일간 경내에서 '베트남 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2015 국민추천 포상자 선정

학명 하남 성불사 주지 스님은 구랍 24일 '2015년 국민추천 포상자'로 선정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인사〉 BBS불교방송

△BBS춘천불교방송 사장 일음 스님

국제선원 무상사 회주 대진당 무심 스님 구랍 30일, 무상사서 영결식 봉행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숭산 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계룡산 숭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진당 무심 스님이 구랍 26일 정오 입적했다. 법랍 31세, 세수 57세.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으며 영결식은 30일 무상사에서 봉행됐다.

무심 스님은 1958년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해 1979년 메사추세츠주 보스턴대 화학과 재학 시절 숭산 스님을 만나 발심출가했다. 30년 이상 한국에 머무르며, 수덕사 · 신원사 · 화계사 등에서 40여 차례 이상 안거에 참여해 수행정진 했다. 서울 화계사 수석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2002년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소임을 맡은 이후 2013년부터 회주로 주석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 판화가 강행복 '길위의 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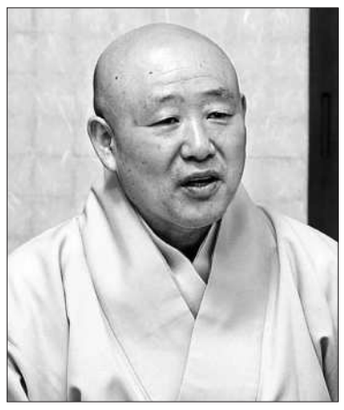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은 1월말까지 상록전시관에서 불교목판화가인 강행복 작가의 '길 위의 길' 판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기억과 내면에 존재한 조형 이미지들이 분반하게 펼쳐진 형태로, 작품 별꽃나무 · 바람 부는 밭이랑 · 붉게 물든 산마루 등은 고향 동네에서 간직한 기억을 나타낸다.

특히 〈명상〉, 〈명상의 나무〉(2015作) 시리즈 등은 지금까지 선보였던 구상적 형상은 사라지고 율동감 있는 선과 단편적 모티브들이 불규칙하게 섞여있다고 광주시립미술관은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은사, 시민 맞춤형 사찰로 변모"

2016 비전 공개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지역민 위해 자정까지 야간 개방
판전 · 북극보전 활용 기도특성화

서울 봉은사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야간개방과 불교전문대학원 운영 등 신행과 문화체험, 휴식과 교육이 함께하는 '시민 맞춤형 사찰'로 변모한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사진〉은 구랍 29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 봉은사 비전'을 발표했다.

'2016 봉은사 비전'은 크게 △기도 · 포교 중심도량 도약 △교육원찰 정착 △전통문화, 역사문화 선양 △한국불교 중흥 도량으로의 가람정비 △힐링사찰 '빛의 봉은사'로 개방 등 5가지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야간개방이다. 봉은사는 매일 밤 12시까지 시민들에게 사찰을 개방한다. 진여문, 법왕루, 미륵대불, 범종각 등 7개 전각에 조명을 설치한 이른바 '빛의 봉은사'다.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봉은사를 한번쯤은 가볼만한 아름다운 사찰로 가꾸겠다는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한국의 가장 번화가에 위치해 있지만 아름다운 전통건물과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불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겠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도와 수행 사찰로서의 면모도 일신한다. 새벽, 사시, 저녁기도 등 하루 세 차례 진행됐던 상시기도에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오후 기도를 추가했다. 신행의 기본인 사분정근 수행전통을 되살리는 것이다.

또 판전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위한 성취기도가, 북극보전에서는 발원성취기도 등 봉은사의 각 전각별로 특성화된 기도가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불광보조일요법회', 신도회 중심의 '봉은법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계층법회' 등으로 다양화된다.

또 조계종 인가 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과 전문교육과정인 '불교대학'을 연계한 통합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기초학당은 1 · 5 · 9월 년 3회, 불교대학은 봄 · 가을 연 2회 등 주 · 야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불교학과와 선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명 스님은 "교양대학 수준에서 보다 발전한 전문적인 불교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산대재 등에 맞춰 봉은사의 역사와 관련된 호국불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봉은사 내 가장 오래된 전각인 '판전'(1856년)의 국가문화재 등재도 추진된다. 전통문화체험관 1차 완공도 이뤄진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지상 · 지하 2층 규모로 건축면적 255평, 연면적 720평으로 가을 경 완공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도시공원법에 묶여 있던 상황이 타개된 후 들어서는 체험관으로 현재 30여 명 규모의 수용인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불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봉은사에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삼보회 '삼보법사회' 출범

초대회장에 이호영 前 파라미타 회장



한국 최초 재가불교단체인 대한불교삼보회(이시장 박호석)가 구랍 26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삼보법사회'를 창립했다.

그동안 삼보회는 부설기관 삼보사이버불교대학(학장 정병조)을 운영해왔다.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지난 10월 법사과정 첫 이수자로 21명을 배출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이호영 前 파라미타 회장〈사진〉이, 감사에는 한기성 전 교육경영직 불자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호영 삼보법사회장은 "현재 군포교와 병원포교 등 포교 일선에서는 출가자 감소로 인해 원할한 전법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포교 사각지대인 군과 병원은 물론 일반 사찰의 법사 지원 활동을 통해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고, 특히 삼보법사가 직접 포교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전법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호영 법사회장은 이어 "재가자들이 법사과정을 이수해 현장에서 법회를 진행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삼보회 법사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54년차 회장에 박태우 씨

구랍 27일 선출, 이 · 취임법회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54년차 회장에 심견 박태우(충북대 11학번) 충북지부장〈사진〉이 선출됐다.

대불련은 구랍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4년차 대불련 회장선거를 실시, 단독으로 출마한 박태우 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박태우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우들과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법우들에게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의 대불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53년차 이채은 회장은 이임사에서 "꽃 같은 법우님들과 함께한 1년이 매우 값지고 소중했다"며 "열정을 보여준 법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열정이 개인의 삶과 대불련의 비전에 동행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 · 취임식은 △연꽃등 공모전 시상식 △영상편지 상영 △53년차 회장 이임사 △54년차 회장 취임사 △중앙집행위원 임명 △대불련 지도위원장 인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신흥동주민센터에 쌀 100포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기탁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당)은 구랍 24일 목포 신흥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쌀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앞서 23일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15 송년의 밤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모연한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윤호섭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감사패 수상

서울소년원으로부터 봉사활동 공로 인정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심연홍)가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로부터 감사패 및 표창장을 수상했다. 구랍 30일 고봉중고등학교는 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에 대해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심연홍 센터장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장창을 수여했다.

교정교화센터는 고봉중고등학교서 매주 토요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멘토링 봉사 · 분기별 템플스테이 · 여름 가을 수련회 등 실시하며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아름 기자**

크리스마스 '씰 모금' 동참

부산 여여선원, 대한결핵협회 요청에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한다.

대한결핵협회(회장 정근)는 구랍 29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여여선원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우리나라 기부문화 효시인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며 환영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배식봉사에 앞서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이 주먹을 불끈쥐고 '화이팅'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배식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



어르신들이 스님들이 배식한 음식을 제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고 있다.

"스님이 주신 공양이라 더 맛있어요!"

전국비구니회, 구랍 29일 종로노인福서 대중공양 봉사

"세상에! 살면서 스님들께서 주신 공양을 먹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구랍 29일, 전날 갑작스레 찾아온 동장군에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옷깃을 세우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이때 비구니스님들이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려 대중 속에 뛰어들었다. 바로 '일하는 비구니회'를 표방하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중공양 봉사를 펼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중과의 소통 · 봉사를 운영기조로 삼으며 출범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스님 20여 명은 이날 1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성심껏 배식봉사를 했다. 제11대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사회봉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들은 봉사에 앞서 연두색 앞치마와 마스크, 팔토시를 착용하고 밝은 얼굴로 배식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밥과 반찬 배식 · 자리 안내 등 각자의 소임을 정한 스님들은 어르신들에게 어떤 인사를 건넬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같은 시각 식당 문 앞에는 이미 어르신들이 10m 가까이 가지런히 줄을 선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르신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평소 봉사자들과는 다른 스님들의 모습 때문이었을까. 몇몇 어르신들은 스님을 보고 흠칫 놀란 눈치였다.

"허허허…. 스님들을 이곳에서 만나뵙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봉사하러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제11대 집행부 스님 20여 명
대사회적 활동 첫 행보 나서
취약계층 봉사 정례화 계획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배식을 받던 한 할아버지는 이색적인 광경이 생경한 듯 주위를 둘러보면서도 스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님들은 어르신들마다 밥이나 반찬이 부족하진 않은지 물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했다. 짐이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자리까지 음식을 배달하고, "맛있게 드시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날 메뉴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육개장. 안 그래도 맛있는 음식에 비구니스님들의 정성이 전해져서인지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정말 맛있다"며 엄지를 추켜올렸다. 어느덧 북적대는 식당에는 스님과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스님들에게 합장인사를 올렸다.

길상사에 다닌다고 밝힌 신재심(79) 할머니는 "평소 절에서 스님들께 공양만 올렸는데 이렇게 공양을 받게 되니 음식이 더 없이 맛있고 신심까지 깊어지는 것 같다"면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 멀리 복지관까지 찾아주신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녹색 스카프와 검은 모자로 한껏 멋을 낸 할머니는 지나가는 관장 정관 스님을 붙잡고 칭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어제 복지관에서 친구를 새로 사귀었는데 오늘은 스님들 덕분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 같아 즐겁다"며 "스님들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스님들은 배식이 끝난 뒤에도 어르신들의 식판을 대신 정리하고, 주방청소까지 하면서 맡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전국비구니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나선 데는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제안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기조와 잘 어울리면서도 사홍서원의 제1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불교복지 분야에서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점도 한몫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가 한국불교 비구니를 대표하는 단체이지만 그동안 대사회적인 활동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약속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돌보는 전국비구니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복지관도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1월 13일 회장 육문 스님 취임법회를 통해 모연한 쌀 600kg을 수서경찰서에 기탁했다. 이어 12월 4일 대전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활동을 펼쳤으며, 동지에는 육문 스님이 사비로 마련한 쌀 500kg을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공익적 활동에 주력할 터"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일진 스님



"11월 출범 이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공약처럼 일하는 비구니회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봉사에 동참한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본각〈사진 왼쪽〉· 일진 스님은 비구니회의 공익적 사회참여 역량강화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이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펼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물론 중생구제를 강조하는 출가본분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전국비구니회가 공익적 활동의 첫 행보를 노인복지관 봉사로 정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이겨낸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다. 당초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도 봉사에 동참할 예정이었으나 감기증세가 악화돼 참여하지 못했다.

일진 스님은 "우리 사회에는 여러 계층의 약자가 있지만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스님께서도 동참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셨다"면서 "이번 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 ·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각 스님은 "스님들은 대부분 산중에서 수행만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불교의 특성상 좋은 일은 잘 드러내지 않는 면이 있어서다. 이제는 대중과 가까이서 호흡해야 한다"며 "현재 비구니스님들이 복지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가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며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앞으로 사회봉사를 정례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따뜻한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일진 스님은 "젊은 비구니스님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대중에게 비구니의 역량을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도경스님의 실전 영반 靈盤 구성학 공개강좌 및 수강생모집

기(氣)와 영(靈)을 실어서 점단하는 영반구성학 !

점사 볼때 구성학을 숫자로만 통변 하십니까?
구성통변! 들을때 뿐 통변이 안됩니까?
점사에 말문이 막혀 자신이 없습니까?
손님이오면 무슨말을 해야할지 모른다구요?
구성학의 맹점을 해결한 영반구성학은!!!
문여는소리,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오는순간 통변이 가능하고 잘 맞습니다.
문점자를 보는순간 말문이 열립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창업이 가능 합니다.

교재용 비매품



교육대상
각 사찰 스님들의 불사및 포교에 최고입니다.
온라인상담, 철학관, 사주까페 개업하실 분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통변이 안되는 분
무속인, 점사가 안 나오거나 말문이 막히는 분
인재채용 및 영업직에 계신분,사교나 서비스직에 계신 분
문화센터나 교육원에서 공부했으나 점사풀이가 잘 안되는 분
수료후 수료증, 협회 회원등록 학술회원 위촉 및 협회자격증 수여.

특전:30년 경력의 명리학 해강선생 초청 무료강의 준비중 (스님만)...
본 협회에서는 CD 및 동영상 제작을 일체 하지않습니다.

강의 일정표
정규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속성반
스님특별반
일반인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선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영반구성학 협회장
대한선보신문 대표
서울 고해사 주지
부산 도경사 주지
묘법사 3년 하안거
마니산 토굴 2년 기도정진
대둔산 토굴 3년 기도정진
그 외 기도, 명상,참선, 기공, 선법,등
수회 수련및 기도정진

■ 구성점사를 단순히 숫자로만 점단 한다면 전문 통변가가 되지 못한다.각 궁에는 기가있고 영체가 있으며 들고 나는 숫자역시 영성에 의해 움직이므로 단순히 수의 자리이동이라 생각 한다면 점사가 막힌다. 영성의 감각 기관을 깨우는 수련을 하루 3~10분 명상으로 심신의 변화와 영성을 키워 훌륭한 통변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도를 병행 해 나아갈 것입니다.

■ 본 종단과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전화 하시면 입종안내 및 입종서류 보내 드립니다.
종단 입종 서류접수 심사 후
승려증,사찰등록증,임명장을 드립니다
본 종단과 함께 할 법사님도 환영합니다

■ 출가(법사나 스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분)에 뜻이 있는 분은
본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 교육과정을 거친후
승려증 발급과 사찰이나 포교원을 개원 하고자
하는 분은 종단에서 적극 후원 지원함. .
할 일이 많습니다.사찰,포교당운영,기도,명상,참선,기공등..

오시는 길. 주소: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삼익아파트 상가 2층)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하차 1번출구나와서 왼쪽 계단올라오면
공개강좌 : 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삼익아파트가 보입니다.) 도보 5분거리

禪大韓佛教曹溪宗
선대한불교조계종
(02) 959-1825

선대한불교조계종 부설. 구성학 등록번호제00189호
대한靈盤구성학협회
대한영반구성협회
(02) 962-3467

“복지관이 식상하다고? 여기 참여해봐요!”

올해 눈여겨볼만한 교계복지관 사업 3選


신사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주민모임이 운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새롭게 문을 연 영화제작소 전경.

신사종합福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

서울 은평구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의 ‘따사로이 주민협동스쿨’은 지역주민 자생단체를 양성해 사업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욕구를 해소하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3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복지관 전국평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관 분야에 선정된 13개 프로그램 중 교계복지관은 신사복지관이 유일하다.

신사복지관은 2011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수탁 이후 기존 복지관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운영 슬로건을 ‘마을지향복지관’으로 정했다. 이전까지 복지관이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용자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제대로 아우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이었다. 2012년 신사복지관이 실시한 지역 설문조사 결과(307명 대상)에 따르면 복지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주민이 절반에 가까웠고(47.7%), 주민들은 복지관 이용 시 ‘가난한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사복지관은 2013년 기관운영 발전위원회를 구성, 매주 회의를 통해 지역복지관의 정체성과 방향, 관점 및 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모임 중 복지관과 협약을 맺어 자립하고자 하는 단체를 선정해 역량강화를 도모했다.

알음알음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주민모임들은 복지관의 지원 아래 재능나눔교실로 발전하거나 마을공동체 · 사회공헌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복지관 측에 역으로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신규 주민활동가를 발굴하고, 쓰레기 · 여성 및 아동 안전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문제 등 지역 아젠다를 설정했다. 현재 주민협동스쿨에는 △은평품앗이 육아(공동육아) △동화나라 옹달샘(독후활동) △꼬마도반(성폭력예방인형극) △모모(주부 재능나눔) 등 주민모임 회원 100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신사복지관은 올해 ‘모두의 공동거실’이라 불리는 독일 마더센터를 표방한 한국형 마더센터 설립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워크샵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영화학교

2008년부터 매년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구랍 9일, 관내에 영화제작소를 개소했다.

영화제작소는 최근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촬영이 가능한 기기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이에 비해 편집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편의시설이다. 여기에는 2010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후원해 온 서울메트로의 성금 3000만원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부터 영상 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어르신과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출품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화학교’를 운영한다. 연간 24회기동안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각자 의도에 맞는 영상촬영과 편집이 가능하도록 영화제작기술을 익혀 스스로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과 작품상영회, 서울노인영화제 작품 출품 등 노년기 자존감을 높이는 행사도 마련된다.

강북장애인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이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이 올해도 이어진다.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 서울 화계사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은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봉사단 W.V.P과 함께 △장애인 3행시(우수작 관보 게재) △장애의 올바른 이해 OX퀴즈 △알록달록 부처님 부채 만들기 △가족사랑 뱃지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시각장애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이 캠페인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아나율을 부처님께서 십대제자로 받아들여 참된 수행자로 거듭나도록 한 데서 착안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 편견을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장애에 대한 유전성이나 업무능력의 부재 등 사회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색안경을 걷어내고, 서로 존중해야할 존재로 인식하도록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관 측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서 가족 건강 · 행복 기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제로투세븐, 1억원 상당 영유아 물품 후원

조계종복지재단에 전달… 6년째 인연 이어와



영유아브랜드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사장 조성철)이 1억1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쾌척했다.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6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영유아브랜드 전문기업 제로투세븐(사장 조성철)이 1억1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물품을 쾌척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제로투세븐이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제로투세븐은 2010년 재단과 인연을 맺은 뒤 매년 꾸준히 영유아 물품을 후원해오고 있다. 또 어린이집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다”며 “지속적인 나눔 참여를 통해 마음 가득 따스한 행복을 전해주는 제로투세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달식에 대표로 참석한 안경화 제로투세븐 상무는 “상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하는 대상을 비롯해 같이 나누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춥고 외롭게 지내는 어린이들이 환한 웃음을 간직하며 자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호섭 기자

네충 라마와 함께 길상 원만 ‘염원’

캄따시링, 구랍 29일 몽골 국사 초청법회


금강승 수행센터 캄따시링(센터장 지덕)이 네충(Nechung Kuten · 사진) 라마스님 초청법회서 새해 행운과 길상(吉祥)을 염원했다.

캄따시링은 구랍 29일 몽골 국사 네충 스님을 초청해 동국대 국제선센터서 ‘2016년 길상원만 대법회’를 봉행했다. 네충 스님은 몽고 국사이자 달라이라마(Dalai Lama) 호법보좌관이다. 현재 남인도 대양사원, 미국 하와이를 비롯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몽골 울란바토르 등 세계 각국에 포교당을 보유하고 있다.

캄따시링 측은 “캄타시링 개원 2주년을 맞아 네충 스님과 함께 자비와 가피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길상원만 대법회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2016년엔 염원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과거 고통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개원한 금강승 수행센터 캄따시링은 티벳 불교의 ‘둑빠까규’ 법맥을 잇는 9대 캄툴 린포체를 근본 스승으로 삼아 기초불교, 사가행, 금강승 등 수행하는 공간이다. 박아름 기자

캄보디아에 연간 우물 · 화장실 19개 건립

위드아시아, 연예인 팬클럽 후원 ‘왕성’


백청강 팬클럽이 후원한 우물 앞에서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최빈곤 마을을 대상으로 국제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위드아시아가 연간 총 19개의 우물과 화장실을 건립했다.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2011년부터 5년간 캄보디아 최빈곤 마을에 공동화장실 및 우물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만 우물 13개소와 화장실 6개소를 건립했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위드아시아에 따르면 우물과 화장실이 건립된 곳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량으로 2~3시간 떨어진 쁘레이벵주 쁘레이끄랑 · 찌뻬여이 · 베잉 마을 등 5곳이다. 건립된 우물과 화장실은 마을 10여 가구가 함께 사용해 약 700여 명의 주민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국내 연예인 팬클럽들의 왕성한 후원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올해에만 백청강 · 인피니트 호야 · 블락비 박경 · BTOB · EXO LAY 등 수많은 팬클럽이 나눔에 동참했다.

전근수 위드아시아 캄보디아 지부장은 “5년간 우물과 화장실을 건립해온 결과 주민들의 피부병 및 복통이 많이 사라졌다. 매일 같이 환자들이 약을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사장 지원 스님은 “앞으로도 캄보디아 최빈곤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경찰불자회, 을미년 보내며 새해 ‘평화수호’ 다짐

이상원 신임 서울청장 참석… 구랍 28일 조계사서

경찰 불자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부처님 전에 새해 소망을 서원했다.

조계종 경찰전법단(단장 지현)는 구랍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경찰전법단장 지현 스님, 서울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과 이상원 신임 서울청장을 비롯한 대한민국경찰불교회 · 경찰청불교회 · 서울청불교회 소속 경찰 불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전법단 사무국장 정경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에 이어 환영사 및 축사 순서가 이어졌다. 허영범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대구지방경찰청장)은 정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는 시대와 공간, 종교를 초월해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지혜”라면서 “특히 ‘상호 공존과 평화’란 가르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란 경찰 임무와 긴밀히 맞닿아 있다. 경찰불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이 같은 가르침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것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확고한 길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당일 취임한 이상원 신임 서울청장도 자리해 “불법(佛法)의 지혜가 경찰 불자들을 항상 보살펴 줘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서울경찰은 현재 수많은 난제에 직면했지만 여러 스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아 전 직원이 지혜로써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당신은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미붓아카데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강좌

박찬국 서울대 교수 '불교와 에리히 프롬'

미붓아카데미가 7월 10일 시작한 인문강좌 '21세가 불교를 철학하다'가 구랍 18일 강연으로 5개월 간의 장정을 마쳤다. 약 1500명이 강좌를 들었고, 이중에는 스님과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도 상당수 있었다.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이라는 소문은 허언은 아니었다. 마지막 강연은 니체 철학의 대가 박찬국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에리히 프롬이었다. 정신분석부터 사회 · 정치 등을 넘나들었던 사상가 에리히 프롬의 철학과 불교 사상의 연관성을 찾아본 강연을 정리했다.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찬국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및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1년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로 제5회 '청송학술상'을, 2014년 〈니체와 불교〉로 제5회 '원효학술상'을 수상했다.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 1900~1980)은 사상가이자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알린 지식인입니다. 저서가 많이 읽혔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바로 와 닿는 것입니다. 반면 철학계에서는 무시하는 느낌이 많지요. 난해해야 대접받는 경향이 있는데 에리히 프롬을 통속적인 사상가로 여기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그의 철학은 과소 평가되고 있습니다.

프롬의 철학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철학까지 그 폭이 넓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불교와 유대교, 기독교 신비주의, 실존철학, 맑스 철학 등 어느 특정한 철학 체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프롬은 평생에 걸친 것을 현대인과 현대사회의 병리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고와 열정을 바쳤습니다. 단순한 이론가에 그치지 않고 세계평화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정신분석과 맑시즘을 종합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사회적 성격'의 개념입니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우리의 성격을 하나의 성격으로 몰아갑니다. 프롬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자신이 잘 팔리도록 스스로의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봤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소유에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사고하도록 성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은 이성적 실현과 존재 가치가 아닌 소유함에 있어서 행복을 느낍니다.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가 행복의 척도처럼 됐습니다. 프롬은 이 같은 상황이 현대인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교와 프롬은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프롬의 정신분석학도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프롬은 불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사상가였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불교야 말로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종교이며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비화나 계시나 권위도 인정하는 종교라고 격찬했습니다. 실제 프롬은 불교와 노자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특히 자신의 정신분석학과 불교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프롬은 독일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자신도 어릴 적 꿈은 유대 경전인 〈탈무드〉의 연구가였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1918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는 유대교를 버리고 비유신론적 휴머니즘을 자신의 신조로 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의 박해가 심해지자 프롬은 1933년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새로운 행보를 보인 프롬은 이스라엘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한 시오니즘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프롬이 불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20세 중반입니다. 대학 시절 정통적 유대교 교리와 관습을 포기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불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불교적 이해를 심화시킨 것은 스즈키 다이세츠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프롬은 1956년 당시 뉴욕에 있었던 다이세츠와 선불교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그는 선불교의 본질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프롬은 1957년 다이세츠와 '정신분석학과 선불교'를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프롬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이해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프롬은 매일 아침 10시에서 11시까지 명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롬은 1975년에 자신의 7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전혀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두 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프롬에게 그 비결을 묻자 "아침 2시간 동안 호흡과 명상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병행했던 프롬은 선불교에 대해 이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세련된 반(反)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이며, 그것은 '비종교적' 종교('nonreligious' religion)를 발전시키고 있다. 선이 서양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독단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종교적' 종교라는 것은 유신론적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양적 사고방식에는 기독교를 대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프롬은 불교를 종교라고 봤습니다. 이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시키는 것이 종교의 본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서 한 구절에서 프롬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그것이 인격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유일신교냐 다신교냐가 아니라 그것이 권위주의적 종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종교냐이다."

소유지향적 삶은 삼독심 기인
존재적 삶은 가치 실현 위해
모든 것과 소통 · 교감하는 것

프롬, 사상가이자 禪 수행자
"불교는 최고의 人本적 종교"

이렇듯 프롬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권위주의적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를 분류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신(神) 중심으로 보지 않고 종교를 믿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진보할 수 있냐는 것을 중요한 척도라고 봤습니다.

모든 권위주의적 종교는 신의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은 퇴보하게 됩니다. 북한의 체계도 권위주의적 종교 형태이고 구복신앙도 같은 형태입니다. 이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기적이게 됩니다.

인본주의적 종교에서 신은 윤리적 가치고 궁극적 가치 실현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이념에 충실할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한 지혜를 더욱 성숙시키게 되며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해서 공감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프롬은 불교를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우상파괴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 저서 〈소유냐 존재냐〉는 불교 사상이 프롬의 사상에 미친 깊은 영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면서 존재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책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현대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써 삶의 의미를 보다 많은 물질의 소유와 쾌락의 향유에서 찾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지배될수록 인간은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에 예속되는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근본적인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는 삶에 대한 공허감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프롬은 공허함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봤습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들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것들과 교감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러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인 지혜와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입각한 삶이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라는 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이 주장한 존재지향적 삶을 위한 과제들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인간의 사악함과 파괴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자기 이외의 어떠한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지도 않는 지혜로운 인간이 돼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장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운명에 맡기고 성장하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 연 문

원각사 땅 한평 사기 불사를 봉행합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에서는 대웅전 뒷집 땅 한평 사기(집 3채, 151평) 불사를 봉행합니다. 땅 부지 매입 이후 전각건립, 공양간 신축, 신도님 휴식 문화공간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각사는 광주 도심포교당 중심도량으로 20여 년 전부터 크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원각사 불자님의 오랜 숙원인 뒷집을 매입하여 광주불교 중심인 부처님의 전법도량으로 더욱 번창하기 위한 이런 뜻깊은 불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각사 땅 한평 사기 불사 동참 인연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다겁생의 업장이 소멸되어 자손은 번성하고 무병장수하며, 복덕구족 되시길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 하옵니다.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 회주 현고 합장
사부대중 일동

■ 동참시주 : 1인 땅 한평 100만원
■ 동참계좌 :
광주은행 019-107-341746 원각사
농 협 301-0089-8977-61 원각사
■ 문의접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

※ 동참 시주자는 공덕이 오래 전해지도록 전각 법당 건립시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광주포교당 원 각 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2016년 불교학계 주요 행사는

불교학 지평 넓히는 토론 '다채'

새해 불교학계가 불교의 실용적인 요청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를 대거 마련한다. 그동안 이론에 치중됐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불교학이 새로운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1월 30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하는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예술학' 각 분야로의 확장이 논의된다. 도업 스님을 비롯해 조명제, 고영섭, 송현주, 장재진 등 그동안 불교학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학자들이 학계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은 "현재 한국불교학 연구에는 '전승의 불교학'과 '현대의 불교학' 방법론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승 불교학은 교판과 관법, 현대불교학은 이론과 실천에 얽매여 있다. 현대불교학의 장점을 살려 좀 더 넓은 해석의 지평을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의 동계워크샵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의 춘계세미나가 그 것이다.

불교학연구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한국 간화선의 미래'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전 학술세미나가 2인 발표로 간소화되고 오후부터 학자들의 난상 토론회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불교학회, 인문학 담론 개최
불학연구회, 간화선 비판적 고찰
효봉선사 50주기 선양 세미나도
통합디지털대장경 선보일 예정

불교학연구회 측은 "선문염송의 공안과 전통적인 간화선의 모습, 현대 진행되는 간화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그 접점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지난해 가을 추계학술대회의 '수행과 호흡' 주제에 이어 간화선 수행법을 점검하고 그의 적용 범위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도 6월 경연세대에서 규봉종밀과 선의 역사 및 사상에 대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불교사상의 전개를 동아시아 범주에서 바라보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월 18일 동경대에서 '중관과 유식의 동아시아적 전개' 공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금강대 측에서는 김성철, 차상엽, 정주희 교수 등이 나서며, 동경대 측에서는 찰스뮐러, 가토 고지로, 나카니시 도시히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특히 찰스 뮐러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중관과 유식의 해석에 대한 원효의 역할' 발표를 통해 원효 스님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근현대 고승들의 사상을 조명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진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30일 서울 법련사에서 조계종 3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의 열반 50주기에 맞춰 선사상을 살피는 학술대회를 연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도 봉암 변월주 스님과 용성 스님의 관계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10월 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도 상반기 중으로 청도 운문사와 함께 나한신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과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가 4년 동안 공동작업한 통합디지털대장경도 상반기내에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학술원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글대장경 DB 및 고려대장경 원문DB를 통합한 통합디지털대장경을 준비해왔다.

불교학술원 측은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향후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계, 논문심사 제도 개선 시작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46호부터 '심사기피제' 도입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불교학연구〉 제46호부터 심사기피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사기피제도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정 심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피하고자 하는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 기피사유를 작성해 편집위원장 앞으로 메일을 보내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1인에 한해 심사자 선정에 반영한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논문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사/철〉에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이란 글을 통해 "논문심사가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때로 심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훈계하듯 지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재진 동명대 교수도 심사자의 자격과 논문투고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각 학회관계자들은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불교학연구회의 이번 조치는 학계에서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 받는다. 불교



불교학연구회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

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을 앞장서 도입했으며, 전자저널 또한 최초로 도입했다.

이런 노력 끝에 등재지 〈불교학연구〉가 불교학 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올랐고 2015년도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편,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 제46호 원고를 모집 기한은 1월 29일까지다. 논문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120~150매까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불교학연구 투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ksbs.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성보, 이젠 인터넷으로 손쉽게 보세요"

문화재청,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서비스 실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기존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을 개선해 구랍 31일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3.0에 따른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문화유산학습관 △문화유산탐방관 △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불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국보122호 진전사지 석탑'을 검색하면 석탑 사진과 동영상, 석탑 디지털 도면과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자료 등 정보와 콘텐츠가 한번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새로 추가된 '문화유산학습관' 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이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콘텐츠다.

어린이 · 청소년 등 교과과정을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비롯하여 3차원(3D) 시뮬레이션 등이 제공된다.

'문화유산탐방관'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문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서비스 화면

화유산을 시간의 구애 없이 집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세계유산', '궁궐 · 왕릉', '건축 · 과학', '사상 · 신앙' 등 10개의 테마로 구성해 500여 편의 영상콘텐츠를 제공한다.

'문화유산체험관'을 방문하면 '문화재지킴이',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등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등 스마트폰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8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개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장충동 만해 NGO 센터에서 제8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산스크리트 집중강좌'를 개설한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강좌는 불교고전어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 학습을 통해 타 언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생생한 의미에 접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문법반을 맡고, 이영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강독반을 맡아 강연한다. (041)731-3628

노덕현 기자

티벳대장경역경원, 티벳어 무료 강좌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현대 티벳어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강은 이지현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이 티벳어 글자와 기초문법,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2009년에 설립돼 티벳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벳어 한글표기안, 티벳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제77집 원고 모집

불교교학 · 불교사학 · 불교응용 3개 분야…1월 10일 마감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제77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마감은 1월 10일 오후 5시까지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원고를 받지 않는다.

국내 불교전문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불교학〉 77집에 게재할 원고를 3개 분과, 즉 불교교학 및 불교사학, 불교응용로 나눠 모집한다"며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불교학자들이 모집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메일(hanbulhak@daum.net)을 통해 접수받는다. 심사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010)8831-8525

노덕현 기자

지자체 대상 '문화재 夜行 프로그램' 공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가 집적 ·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6 문화재 야행(夜行)'에 대한 사업공모를 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이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주제로 하는 2016년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은 지역에 소재하는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야간관람 프로그램 △문화재와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야간개방 프로그램 △야간 역사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야간공연 · 시연 프로그램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게 된다. 이와함께 야로, 야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016년도 사업 선정을 위한 이번 공모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이나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 위주의 축제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경제 살아난다면, 3천배 아니라 3만배도”

해운대 원각사서 젊은 CEO들의 기도정진 화제

추운 겨울 회색 좌복 위에 하나 둘 땀방울이 떨어졌다. 한 무더기의 젊은이들이 해가 지고 밤이 될 때 까지 끝없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부산지역 젊은 불자 CEO들이었다.

경제발전을 발원하는 젊은 불자 CEO들의 3000배 정진이 진행돼 화제다. 부산 해운대 원각사(주지 안도)는 구랍 30일 ‘젊은 불자CEO 3000배 정진’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원각사 극락보전에는 20~30대 젊은 남녀 12명이 자리를 잡았다.

참가자들의 이력은 화려했다. 배강필 드림코리아 대표, 이정화 코렉스 대표, 장정화 제이투페어스 대표, 조은형 부산전람 대표, 강채리 대구전람 대표, 권미영 카페 ‘하라르’ 대표와 각 회사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의 종교도 다양했다. 개신교신자가 3명, 가톨릭신자가 2명이나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라 평안과 발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불교 수행은 머리를 맑게 해 지혜를 얻는 최고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각사에서 진행하는 불무도와 명상 수업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 대부분 불무도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 등으로 집중력을 키우고 있었다.

이웃종교인들도 정진 참여

조직화 및 나눔 회향도 계획

“불교로 망상 없어져 도움”

조은형(35) 대표는 “개신교 신자지만 불무도와 절 그리고 명상을 하며 불교문화와 친숙해졌다.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원각사에서 불무도를 하고 있다”며 “3000배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망상을 없애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에는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젊은 CEO들이 구랍 30일 원각사에 모여 경제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3000배 정진을 하고있다.

이 모임을 주창한 이정화(35) 대표는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한해를 마무리하며 3000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반들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안 좋은 기억은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 얻는 집중력과 지혜로 좋은 결과들을 얻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함께 정진한 인연을 바탕으로 향후 모임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나눔과 봉사를 통한 회향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각사 총무국장 도천 스님은 “이들의 바람처럼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정진에 의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지혜를 갖추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부산聯, 해운대서 성도재일 법회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월 1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제1부 성도재일 대법회에서는 회장 수진 스님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격려사,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축사와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교육감의 축사도 이어진다.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서는 청소년포교단체 파라미타 회원들과 군장병, 포교사단 포교사 등이 참여해 팀 대결을 펼친다. 3인 1조로 팀이 구성되며 팀별중 청소년 1명이 포함돼 있다.

퀴즈대회서 우승하는 청소년에게는 부산시교육감상이 주어지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국내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또 자원봉사 단체 및 공헌도가 높은 이에게 부산시장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도재일을 기념하고 조계종도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대구 운불련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회(회장 성승길)는 구랍 16일 대구 천태종 동대사(주지 도산)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에는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과 성승길 대구 운불련 회장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운불련은 동대사 앞마당에 택시를 나열하고 총회 개회식을 열었다.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은 “운불련 택시는 달리는 법당이고, 불자기사들은 거리의 포교사”라며 “좋은 인연들을 맺어 부처님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前종정 성관 스님 추모재

해인사 구랍 27일, 열반 14주기 맞아 대적광전서 봉행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부도탑전을 참배하고 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4주기 추모재가 구랍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도성 스님 세민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에 출생해 14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방장과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문도대표 성법 스님은 “겨울철에 은사스님 추모재에 참석하여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스님들의 인사에 이어 성관 스님의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는 육성 법문이 나왔다.

한편, 이날 추모재에 앞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문도회 회장 성법 스님, 무영 스님 무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원당암 미소굴을 참배하고,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차향으로 경찰 문화 선도하자”

부산기장불교연합, 경찰서에 차문화대학 개설

부산기장불교연합은 구랍 29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에서 ‘기장차문화대학’(학장 정오 · 이하 차문화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전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차문화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다선일여(茶禪一如)’ 붓글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여 스님과 학장 정오 스님(기장불교연합회 회장), 부학장 보혜 스님(부산차인연합회 회장), 정남권 부산기장결찰서장(부산기장 경찰서)의 헌다가 진행됐다.


대중들이 차문화 중흥을 외치며 ‘다선일여’ 글씨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개강식에서는 학장 인사말 △차문화대학 소개 △회장단 소개 △간담회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심외무차’를 주제로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의 다도인문학강좌도 진행됐다.

학장 정오 스님은 “훌륭한 차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경찰의 마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차는 경찰들에게 휴식과 풍족한 삶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된다”며 격려했다.

부학장 보혜 스님은 “이 자리를 통해 경찰과 기장군민들이 하나 되고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차문화대학 개강을 축하했다.

차문화대학은 1월 첫 주부터 초급반 3개월, 중급반 3개월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고급반 6개월이 이어진다. 차, 시, 인문학 및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차문화대학에는 경찰 24명과 기장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과목은 △다구설명 및 차의 정의 △차의 유례, 생활 다례 △선차 △차와 마음 △말차 △커피 △발효차 △동다송 강의 △화차 △차와 도자기 △연차 △차와 문학 등이다.

교수진은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 정영자 여성문학인 이사장, 김성대 문화평론가, 김봉건 동국대 교수, 이수백 황산요 대표, 박도희 다향차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여 스님, 정오 스님, 보혜 스님 및 교수진들과 경찰 및 지역의 다인 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사상구불교聯, 일일찻집 개원

부산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유정)는 구랍 24일 부산 르네상스호텔에서 일일찻집을 개원했다.

이날 일일찻집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청소년 장학사업 △국군장병 위로법회 △해외구호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일찻집에는 회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300여 시민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또 지역 학생 및 사찰에서 선정한 소년소녀 가장 30여 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하성미 기자

천태종 해영사, 이웃돕기 자비의쌀 전달

천태종 부산 해영사(주지 무원)는 구랍 24일 해운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아동에게 쌀 백미 1500kg를 전달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물질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만큼 마음의 진리를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하자”며 “추운겨울,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영사는 지난 11월 9일 부산지역 5번째 천태종 사찰로 불사 중에도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해수관음보살님

금년 정월방생은 2월 21일 봉행하는 해수관음보살님 점안법회에 오세요

보타락가사는 삼사참배와 용왕재,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 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웅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열을 안고 돌아갑니다.

양력 2월 21일(음력 정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그동안 원력을 세워 조성하던 해수관음보살님을 청양바위로 웅장하게 조성을 하여 바닷가에 모시고 거룩한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수관음보살님은 고해중생의 간절한 염원에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업력을 닦아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부처님이며 중생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십니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길 231-28 보타락가사
전화 041-672-1550, 010-2389-0600 (주지스님)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법진스님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

광주불교계, 원숭이해에 내실 다진다

지역불교 활성화 · 소외계층 지원 매진

지난해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광주불교계가 2016년 병신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과 만난다.

먼저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기존 봉축행사와 달리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구랍 28일 열린 제25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불기2560년 봉축행사 기본방향을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설정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찰 합창단 연희단으로 변화 △어린이 · 청소년 연희단 구성 △어울림한마당 등을 정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원형행사장을 만들기 위해 주 행사장소인 아시아문화전당 앞에 대규모 조립식 관람석 의자 2000석을 설치, 무대를 주변으로 신도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연희단 활성화 특별위원회(기획단장 일명, 금선사 주지)', '전통등 활성화 특별위원회(기획단장 무등, 천룡사 주지)'를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역 대표적 재가 신행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표적 사업은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당이다. 특히 입시를 위해 오랜 기간 학원생활을 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청년밥상을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보성건설에서 기부한 빨래차를 운영하면서 독거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빨래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증심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찰음식체험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기에 기존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 만덕사 주지)는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핵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더불어 기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사업(자따마따 1박2일, 어린이생태학교, 청소년리더쉽캠프 등)과 회원수계식, 1080회원 모집사업 등도 실시한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캄보디아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네팔지진 피해 구호사업을 진행했던 것에 이어, 초등학교 화장실 신축, 학용품(가방, 노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요사업이었던 캄보디아 축제, 네팔 축제, 외국인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10세대에 컴퓨터 지원사업과 의류 500벌, 자비의 쌀 지원사업도 이어진다.


2014년 1월,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성도재일 법회에 참석한 광주지역불교 스님과 불교단체 대표들.

올해 가장 안정적 성장을 이룬 **포교사단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지난해 특별사업 중 하나였던 매월 망월동 염불공양, 어린이 포교(선덕사, 양복사) 지원사업, 화순 전남대 병동 순회, 보훈병원 완화병동 법당 마련, 농촌지역 지역 순회사업 등을 이어간다.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양소(행복밥상)를 마련한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 법림사 주지)는 지역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밑반찬지원사업, 생필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지역불교의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자비명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포교취약지대인 대학생 불자회 지원사업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은적사 목조아미타상' 문화재 지정

군산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도

전북 군산시는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37호로 지정된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1666년 혜정(惠淨)에 의해 조성됐으며 은적사 지장전에 봉안돼 있다. 몸에 비해 머리가 큰 편으로 두 손은 다리 위에 낮게 두고 있고 각각 엄지와 중지를 맞댄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을 표현했다. 시무외인은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준다'는 의미이며, 여원인은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 성불사가 소장하고 있는 〈석가여래행적송〉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238호로 지정됐다. 불교서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은 1643년 수청산(水淸山)에 있는 용복사(龍腹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본문은 상 · 하권 2권으로 나눠져 있다.

상편에는 석가모니의 일생과 인도불교, 하편에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내력 등을 담고 있다.


군산 은적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이번에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석가여래행적송〉은 조선불교초대 교정을 지낸 석전 박한영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서책으로 남곡-재훈을 거쳐 현재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이 소장하고 있다.

이로써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포함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는 모두 21건이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전진대회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여 포교사들이 을미년 한 해를 돌아보고 병신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구랍 28일 전주 라루체에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조계종 신도국장 덕산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윤호중 9대 포교사단장 당선자, 이정상 차기 전북지역단장 등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대회에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사는 일반신도들과 차별화된 신행활동을 해야 한다"며 "대신심과 대자비심을 갖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교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지난 4년간 전북지역단을 이끌고 퇴임한 주정기 단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과 우수 포교사와 포교팀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전북불교회관 염불봉사1팀을 이끌고 있는 유봉순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이승규 군포교 3팀장을 비롯한 7개 포교팀이 교구장 표창을 받았다. 또 금산중학교 황인찬 학생 등 종립금산중고생 4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외에도 전북불교회관 어린이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안수빈 포교사의 포교모범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동참한 포교사들은 포교사의 다짐을 함께 낭독하며 병신년 새해 포교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장학금 전달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장학금을 국립공원 자원봉사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구랍 28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재안 스님은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3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전달식에서 재안 스님은 "작은 금액이지만 개암사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작은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암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부안군청에 나누미근농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또 지역사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년의 꿈 향해 동행하는 정다운 이웃"

금산사 복지원, 기린봉노인복지관 개관

금산사 복지원(대표이사 성우 스님. 금산사 주지)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서원복지관 분관인 전주 남노송동 소재 기린봉노인복지관이 구랍 30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성우 스님을 비롯해, 서원복지관장 지월 스님,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복지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 성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전주 서원노인복지관에 이어 기린봉복지관을 개관하게 됐다"며 "14년간의 노인복지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린봉복지관은 연면적 약 1263.03m²(약 382평)에 지상 3층의 규모로 특별교부금 5억, 시비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프로그램실, 노송작은도서관, 컴퓨터실, 휴게실, 운동시설, 대강당,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금산사 복지원 대표이사 성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개관기념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전주 구도심 어르신들의 욕구해소를 위해 개관한 기린봉복지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3명과 조리사, 도서관 사서를 채용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노송동 주민들은 "그동안 노송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불편했는데 기린봉복지관이 개관해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관 개관을 환영했다.

지월 스님은 "남노송동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기린봉노인복지관이 개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의 꿈을 향해 동행하는 정다운 이웃의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謹賀新年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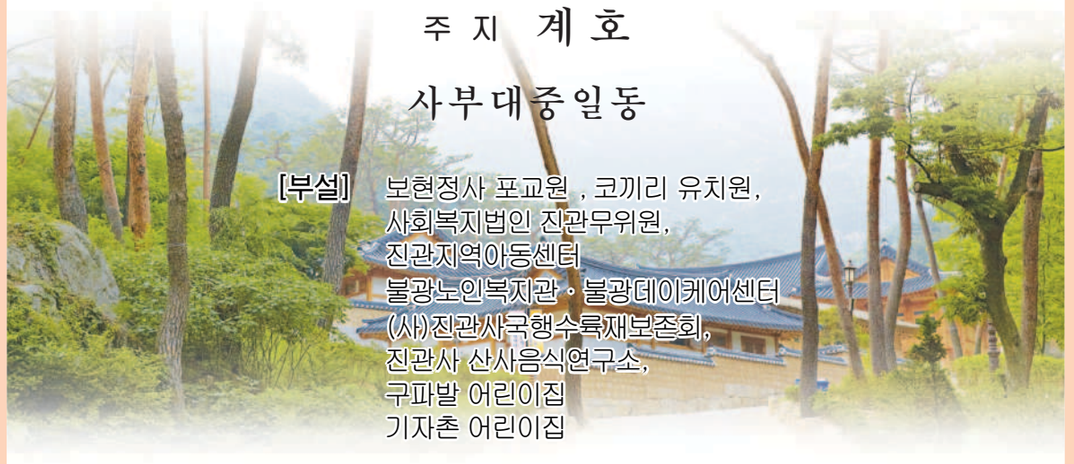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의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기자촌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화촉동방’의 즐거움도 한낱 꿈일지니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㉛ 불보살의 시험을 받는 삼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유사하라는 큰 난관 무사히 건너 삼총사 호위 속에 인도로 가는 길 . 쉬운 길일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큰 난관 없이 나간다. 꽃피고 새우는 봄 지나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소슬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계절. 지친 이들의 발길 잡아끄는 아름다운 장원이 있다. 쉬어가기를 청하는 일행 앞에 눈이 휘하게 밝아오는 아름다운, 아름답기만 한가? 요염하기도 한 부인 나와 맞는다. 알고 보니 과부댁이라네.

부인 성은 가(賈)씨에 죽은 남편의 성은 막(莫)씨라나? 세 딸까지 소개를 하는데 어머니 빰치게 아름답고 또 요염하여라.

현장법사는 거북해해면서도 의연하고 손오공은 이미 이 집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 챈다. 어떤 보살님이 장난을 치시는가?

사오정은 그런대로 무덤덤한데 저팔계 벌써 눈이 돌아간다, 넋이 반은 나갔다. 입가에 침도 흐른다. 거기에 결정타가 날아온다.

마침 숫자도 딱 맞으니 스님들 인도가시는 거 그만두시고 우리와 짝짓기 하고 여기서 사시지요! 스님노릇 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나요? 속세의 재미를 아시나요?

사시사철 모든 것들 마음대로 즐기고 언제나 진수성찬 차려 먹으며 비단 이부자리에 화촉 밝힌 밤이여 뼈가 노글노글해지는 그 즐거움. 스님노릇 하며 아미타불 부르는 것보다야 백배 낫지요.

현장법사는 참으로 의연하여라. 꾸짖듯이 대답을 한다.

출가의 삶은 속세의 삶과 비길 수 없는 좋은 점이 있다오. 수행의 공을 이루어 도솔천에 들어가고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밝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 집에서 누린내 비린내 나는 고기나 탐하고 희망 없이 쪼글쪼글 늙어가는 속세의 삶보다는 백배 낫다오.

부인 크게 화를 낸다.

모처럼 대접을 잘해줬더니 이런 말로 심사를 긁다니! 당신이 싫다면 세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내 딸과 짝지어 데릴사위로 들어와요!

삼장법사 기세가 꺾여 세 제자에게 차례로 묻는다.

네가 데릴사위 할래? 손오공은 이미 눈치를 챘고 저팔계는 맘은 있어도 체면이 있어 대답을 못하고 사오정은 우직하여 고개를 도리도리.

부인은 짜증스럽게 어느 누구든 결정되면 말하라 문 닫아 걸고 들어간다.

저팔계 은근히 충동질을 한다. 이러다 우리 대접도 못 받고 찬 이슬 맞고 자겠소. 무슨 수를 냅시다.

모두들 시큰둥하니 저팔계 애가 닳는다. 말 먹이겠다고 슬그머니 나가 집안으로 들어가 부인을 만나 말을 맞춘다.

어머님, 어머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세 딸 가운데 하나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데릴사위 하오리다. 그런데 요건 몰랐지?

손오공이 술법으로 미행을 하여 현장을 다 봤단다.

결국 도망갈 구석, 변명할 말도 없어진 저팔계. 그 집 데릴사위로 들어가기로 하고 쇠뿔도 단김에 빼어라? 그날로 혼례를 치른다.

그런데 어느 딸과 결혼을 할래? 세 딸 다 주면 안 될까요?

예끼! 욕심도 많다. 그래서 배필 정하기 방법을 이리저리 강구한다. 그런데...저팔계 눈 가리고 세 딸 가운데 하나 잡기를 해도 안 잡혀 그럼 어머님과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했다 꾸지람만 들어.

결국 세 딸의 속옷 가운데 하나를 골라잡으면 그 딸로 정하기로 한다. 세 딸 속옷 모두 입을 수 있으면 셋 다 달라면서 그 작은 여자 속옷 어찌 어찌 꿰입는 순간 속옷은 밧줄이 되어 저팔계를 꽁꽁 묶어 매달고 모든 여인들 자취가 없어진다.

그리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 고루 거각 집들은 다 어디가고 현장법사 일행 숲 속에 누워있었구나. 오래된 잣나무에 종잇조각 걸려 있네.

여산노모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함께하여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는 무대를 꾸미셨다나?

“다른 이는 모르겠으나 저팔계는 너무 속세에 얽힘 많으니 크게 반성하여야 하리로다!”

깊은 숲속에 매달려 절규하는 저팔계 구해 내었네. 불쌍한 저팔계... 한바탕 꿈이로구나!

남가일몽이 바로 이것이런가? 화촉동방의 꿈은 어디로 가고 부끄러움만 잔뜩 짊어졌구나~~

이야기 소개가 좀 길죠? 줄이지 않고 이야기 전개를 알 만큼 다 썼습니다. 그러니 줄거리에 관한 이야기는 줄이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 그걸 빌미로 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보살들이 현장법사 일행을 시험하는 이야기이군요. 거기에 여산노모(驪山老母)라는 여(女)신선까지 가담을 하구요. 아마도 어머니 역할은 여산노모가 맡고, 세 딸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각각 분장하고 나온 듯? 아무튼 그 부인의 성씨와 남편의 성씨 자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네요. 부인의 성인 가(賈)는 거짓이란 가(假)와 음이 같고, 죽은 남편의 성인 막(莫)은 없다는 뜻이니, 모두 여색의 거짓되고 공허함을 비유하며, 또한 이 집과 네 여인이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군요. 이런 집에 들어가면서 손오공만은 벌써 눈치를 챕니다. 어떤 보살님들이 장난은 치시는가? 그렇지만 미리 드러내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하지요. 결국 현장법사 일행이 보살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인데…. 참으로 시험이란 괴로운 것이지요?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종교의 성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하는 유명한 기도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요? 저도 시험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었던 운전면허 시험도 정말 싫었거든요. 엥?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닌가요?

저팔계, 보살의 유혹에 넘어가
현장 스님 수행정신과 대비
재가자가 출가자의 삶 지켜줘야

에고 잘못 나갔습니다. 본줄기로 돌아와서…. 결국 저팔계만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네요. 현장법사는 신통력 같은 것은 없지만 굳은 의지와 신앙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거든요. 제가 서유기를 읽으면서 내내 감탄하는 것은 바로 현장법사의 굳건한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길, 그 참된 구도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굳건함이야말로 현장법사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성이지요. 그러기에 재주가 없으면서도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세 제자들의 스승이 되며, 인도로 가는 여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겠지요. 불퇴전의 서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이런 현장법사와 과부댁의 말씨름은 음미할 만하네요. 각각 세속의 즐거움과 출가의 공덕을 말하고 있지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갑자기 출가 사문과 농사의 일을 연관 지은 경전이 떠오르네요.

부처님은 어느 날 경전(耕田)이라 하는 바라문 집에 탁발을 갔다 하지요. 그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합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종자를 뿌리고 밥을 먹소, 사문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밥을 드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밥을 먹소.”

“소도 없고 쟁기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종자이고 계(戒)는 비며, 지혜는 쟁기고 정념은 보습이며, 정진은 나의 소(牛)니 나를 열반으로 이끈다. 나는 이렇게 하여 밭을 가니 감로(甘露)는 그 과실이다.”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서유기의 이야기와는 다른 각도지만, 불교의 수행은 그 도착점이 괴로움이 없는 열반입니다. 감로가 그 과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찌 세속적 쾌락과 비교하겠습니까? 부인이 맛있는 음식과 화촉동방의 쾌락을 말했지만, 현장법사는 그것의 무상함을 설하고, 그 무상한 쾌락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결과로 이끄는 출가수행의 공덕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있습니다. 앞의 경전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출가인의 농사를 이야기했고 그 빼어난 공덕을 말했지만, 결코 그것이 일반적인 노동생산의 가치를 깔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가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생계를 위한 노동의 시간도 아껴서 수행에 힘쓰기 위해서이지 노동을 깔보아서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은 재가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힘을 수행에 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출가와 재가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분업을 이루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출가수행을 하면 어찌 될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류 멸종입니다! 성생활을 철저히 금하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청정한 생활을 하면 그 공덕으로 아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지듯 생겨날까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군요. 성생활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겠지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의 삶을 재가자들이 책임지며, 출가자들은 모든 삶의 원동력을 수행에만 쏟아붓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교라는 종교가 가진 이상적인 분업구조라는 것이지요.

출가와 재가라는 것을 삭막한 분업구조로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바로 보입니다. 그런 시각을 배제하고 나면 출가자는 무조건 수승하고, 무조건 높고…. 재가자는 불교의 이등시민이라는 소외의식이 생깁니다. 재가자는 열등한 존재이니 이번 생에서는 참아가면서 생산노동에 힘쓰고, 오욕락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공덕으로 다음 생에 출가하여 수행하여 불도를 닦으리라! 앞에서 제가 힘주어 비판했던 삶과 동떨어진 불교, 우리의 삶의 장을 배제하는 불교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재가자는 재가자답게,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이런 원칙 아래에서 삶과 수행의 방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출, 재가를 분업구조로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출가자에 대한 존경심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가자가 낼 수 없는 큰 뜻을 품고, 모든 즐거움을 배제한 채, 모든 힘을 수행에 쏟기로 결단한 그 분들을 존경하고 받들지 않는다면 누굴 존경하고 받든단 말입니까? 유마경을 보세요. 유마거사가 스님들께 취하는 태도를 보세요. 우선 발에 절하는 극진한 공경의 예를 갖춥니다. 출가자에 대한 극진한 공경을 가르침을 받는 재가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거든요.

혹시 스님들이 이 글 읽고 싫어하실까봐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고요? 에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스님들 뵈면 무조건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불공경을 혼동하지 마세요!

2016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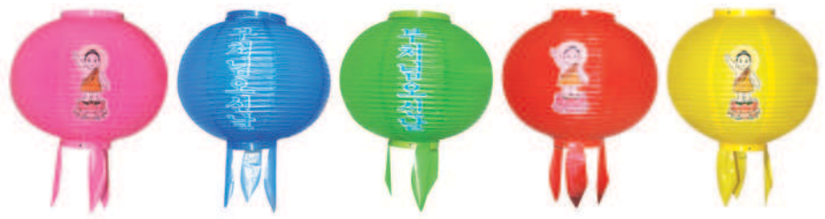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聖鐘社 SUNG JONG SA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 m.btn.co.kr

2015년 11월 2일 부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가을대개편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변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공익을 실천하겠습니다.



월 오전11:20 수 밤11:00/ 목 오후3:50/ 일 오후6:50



수 오전11:20 목 밤11:00/ 토 오전8:30



화 오전11:20 토 오후1:50/ 일 밤9:50



화 오후7:30 수,토 오후1:20/금오전6:20/일오전8:50



화 오후2:50 목 밤8:00/ 일오전11:20



수 오후1:50 금 밤22:00/ 일오전4:00

BTN 은 모든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71번 olleh HD 233번 Btv HD 55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不二’ 깨달음으로 佛·儒 경계를 넘다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⑫ 백곡 김득신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로, 다수의 승려들과 교류하였을 뿐 아니라 불교에도 상당한 식견을 드러냈던 인물이다.

그가 천기(天機)를 얻어 조화로운 시격(詩格)을 이루게 된 것은 다독(多讀)을 통한 그의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전해진다. 특히 어려서 천연두를 앓았던 그는 노둔하여 여러 번 책을 읽어도 기억하질 못했다고 한다. 그의 ‘행장초(行狀草)’와 ‘묘비명(墓碑銘)’에는 나이 1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친에게 〈사략(史略)〉를 배웠지만 3일이 지나도록 읽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인한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천하의 문장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의 학문에 대한 열의와 끈기, 그리고 다독(多讀)을 통해 이룩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친의 독려와 보살핌 또한 그의 성취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셈이다.

원래 그는 당대 명문가였던 안동김씨의 후손이었다. 경상 감사(慶尙監司)를 지냈던 안흥군(安興君) 김치(金緻)가 그의 부친이며, 외숙 목서흠도 문장에 밝았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그 또한 과거(科擧)를 통해 가문을 빛내고자하였다.

1626년에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그는 이 해 가을 문사(文辭) 시험에서 외숙 목서흠으로부터 시재(詩才)를 인정받은 후, 청운의 꿈을 품고 산사와 경향을 두루 유람하며 과거 공부에 매진한다.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드러난 시기도 이 무렵이다. 택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은 그의 문장이 “지금에 제일(當今第一)”이라 칭찬하였으며 시문에 밝았던 그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백의의 제술관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의 글솜씨가 당대에 최고였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글에 능했던 그였지만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한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부친이 “60세 까지는 과거에 응해 보라”는 유언에 따라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1662년 3월, 드디어 증광시 병과에 19위로 급제한다. 실로 그가 품은 청운의 꿈은 59세에 이루어진 셈이니 그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은 후인의 모범이 될 만하다. 아무튼 그가 세상에 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일과 등과(登科)는 모두 독서의 힘이었다. 그가 쓴 〈종남총지(終南叢志)〉에는 자신의 서재를 ‘억만재(億萬齋)’라고 부른 연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본래 노둔(魯鈍)하여 다른 사람보다 배나 많이 읽었으니 〈사기〉,〈한서〉, 〈한유문집〉, 〈유자후문집〉 같은 것은 모두 손수 필사하여 만여 차례를 읽었다. 그 중에 〈백이전〉을 가장 좋아하여 일 억 삼천 번을 읽고 드디어 서재 이름을 ‘억만재’라 하고 이어 절 구 1수를 지어 ‘한, 송, 당, 진의 글들을 골고루 들쳐가며(披羅漢宋唐秦文)/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일 만 번씩을 읽었네(口沫讀過一萬番)/ 가장 좋아한 백이전의 기괴한 문체는(最愛伯夷奇怪體)/ 펄펄 나는 기운이 구름에 뛰어오를 듯하네(飄飄逸氣欲凌雲)’라고 하였다.

김득신이 〈백이전〉을 좋아했던 건 사마천의 강개한 문장의 기상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그의 시는 사마천의 〈사기〉뿐 아니라 〈한서〉나 당대의 한유나 유종원의 글을 토대로 삼았음을 나타낸다.

실제 그의〈종남총지(終南叢志)〉에는 어무적(魚無迹), 이행(李荇, 1478~1534),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정철(鄭澈, 1536~1593), 권필(權 G 1569~1612) 같은 전대의 시인뿐 아니라 남용익(南龍翼, 1628~1692), 김석주(金錫胄, 1634~1684), 홍만종(洪萬宗, 1643~1725) 등, 그와 동시대의 살았던 문장가의 시를 뽑아 비평을 남겼다. 후일 그를 비평가로 평가하는 것은 이런 저술 때문이라 하겠다.

한편 김득신과 승려의 교유는 그가 과거 공부를 할 때에 여러 산사를 다니며 공부했던 전력에서 기인된 듯하다. 비교적 여러 사찰을 순례하고 승려들과도 사귀었던 그는 승려들에게 준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백곡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드러낸 시문은 여러 편이 전해진다. 우선 ‘정 승려에게 주다(贈正上人)’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상 무자를 화두로 삼아(無字須常念)
의심덩어리가 마치 불덩이 같네(疑團似火團)
만약 사악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다면
(邪魔如可)
진여(眞如)로 응착하여 바르게 하리(一物的應看)

무자(無字)는 일찍이 조주 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고 묻었던 한 수행승에게 “무(無)”라고 답한 것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후 대혜스님에 의해 무자화두가 참선의 방편으로 제시되면서 고려에서는 지눌(知訥)이 무자화두로 수행승들을 지도했다고 하고 혜심(慧諶) 또한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을 지어 화두 참선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 특히 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는 무자화두를 경절문(徑截門)의 방편으로 삼아 수행하도록 권하였다.

따라서 김득신은 이러한 선종의 화두 참선에 대한 내력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의단(疑團)이 “마치 불덩이 같네(疑團似火團)”라고 한 것이며 “진여로 응착을 바르게 하리라”라고 말한 것이다. 아울러 그의 ‘패책 승려에게 주다(贈具策上人)’에는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이나 조주선사의 서리 발 같은 선기(禪機)를 이렇게 언급하였다.

조주선사의 서리 발 같은 검을 잡았는가
(趙州霜劍把耶)
육호지랑, 이것이 무엇인가(六戶支郎奈此何)
몸을 돌려 문득 무심지로 들어가니
(身頓入無心地)
생애가 찰나임을 알겠네(識罷娘生一刹那)



조선 중기 문장가였던 김득신은 독서광으로도 유명했다. 어렸을 때에는 문리가 밝지 않았고, 20세가 돼야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독서로 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가 됐다. 그는 불교에도 높은 식견을 가졌다. 사진은 김득신의 일대기를 조명했던 KBS 미니 다큐 〈한국의 유산〉의 한 장면.

불교 식견 높았던 문장가이자
‘억만재’ 서재 가졌던 독서가
금강산·오대산 스님들과 교류
〈백곡집〉에 정황담은 詩 남겨
“석가·유가 나누지 말라” 설파



김득신이 같은 책을 수만 번 읽었던 괴산의 취묵당. 지금은 기와가 올라가 있지만, 본래는 초가였다.

그는 분명 불가의 불이(不二)법문을 능히 요해(了解)했던 유자(儒者)였다. 그러기에 무심지(無心地)와 “곧바로 비야(유마거사의 거처지)의 불이문을 밟고(直 毗耶不二門)”라는 불교의 심오한 뜻을 언급했을 것이다.

그가 수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공맹(孔孟)에만 국한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고승(高僧)에 득도의 일갈(一喝)을 열독했을 것이며 〈도덕경〉이나 〈남화경〉도 그의 서가를 장식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모르지기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하게 서로 만난 곳에서(要須自在相逢處)/ 석가니 유가이니 하는 구역으로 나누지 말라(儒釋封彊且莫分)”고 말했을 것이다. 실로 그는 한때는 노둔했지만 다독(多讀)을 통해 무변(無邊)을 품었고 불교를 알았기에 거침이 없었던 선비였을 것이다.

그가 장수사에서 승려가 준 짚신에 감사하며 지은 ‘사장수사승증망혜(謝長水寺僧贈芒鞋)’는 다음과 같다.

곧바로 비야(유마거사의 거처지)의
불이문을 밟고(直 毗耶不二門)
내 억지로 만든 (세상의) 이름을 미워한다고
하리라(生憎名字强云云)
모름지기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하게 만난
곳에서(要須自在相逢處)
석가니 유가이니 하는 구역으로 나누지 말라
(儒釋封彊且莫分)

장수사 스님이 무슨 물건을 주었는가
(僧從岳寺贈何物)
돌아가는 북객에게 두루 좋은 짚신이라
(芒屩偏宜北客歸)
내일 두메의 높고 낮은 길에(明日峽中高下路)
숲과 돌길을 밟으며 저녁놀이 다하리
(穿林踏石盡斜暉)

장수사는 함양 안의에 소재한 고찰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 때 그가 영남의 선주(善州)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아무튼 그가 돌아갈 무렵 장수사 승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김득신을 위해 짚신을 선물했던가보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사 승려에게 준 이 시는 그의 시적 감수성이 오롯이 드러난다.

한편 그가 유람했던 사찰은 금강산의 묘향사, 보은사(報恩寺), 청룡산(靑龍山)의 암자, 오대산, 청심암(淸心庵), 쌍계사(雙溪寺), 상왕사(象王寺), 성암사(聖巖寺), 정자사(正慈寺), 청평사(淸平寺), 두타사(頭陀寺) 등이다.

그와 교유했던 승려로는 △금강산의 승려, 휘상인(輝上人)·진일상인(眞一上人) △보은사의 도심(報恩寺僧法心) △청용산의 경천상인(靑龍山上人敬天)·벽안대사(碧岩大師) △오대산의 법장상인(五臺山僧 法藏上人)·현철상인(玄哲上人)·처림상인(處林上人)·탁영상인(卓靈上人)·두타사해상인(頭陀寺海上人)·혜정상인(惠正上人) 등이 있다.

특히 벽암대사(1575~1660)와 교유했던 흔적은 그가 벽암대사에게 준 ‘증벽암대사(贈碧岩大師)’를 통해 드러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월과 소요가 모두 입적했으니
(松月鞭羊皆入寂)
자비로운 배로 다시 백성을 구제할 수 없네
(慈航無復濟蒼生)
조사의 도리 지금 쇠퇴 여부를 말하지 말라
(休言祖道今衰否)
우리 대사의 법인이 가장 밝으니
(最是吾師法印明)

벽암대사는 원래 보은 출신으로 8도도총섭이 되어 남한산성의 축성을 감독했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수천 명의 승병을 모집, 북진했던 수행자였다. 따라서 김득신은 법문삼걸(法門三傑)로 칭송되었던 송월, 소요가 모두 입적했다하더라도 수행력이 높은 벽암대사가 있기에 다시 창생(蒼生)을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호는 백곡, 귀석산인이다. 그의 저술로는 〈백곡집(栢谷集)〉과 〈종남총지(終南叢志)〉, 〈종남쇄언(終南粹言)〉이 있고 〈환백 장군전(歡伯將軍傳)〉과 〈청풍 선생전(淸風先生傳)〉 같은 소설을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조작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어둠 밝히는 등불인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서(論書)다. 대승경전에 설해져 있는 모든 사상을 종합적으로 회통(會通)하여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혀 놓은 책이다. 이 논의 저자 마명(馬鳴, Asvaghosa)은 생몰연대에 관한 이설이 있으나 대체로 그의 활동시기를 기원 후 100~150년경으로 본다. 그러니까 대승기신론이 쓰진 때가 2세기 초반 무렵이 된다. 범어의 원전이 발견되지 않아 중국에서 찬술된 논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한역본으로는 진제삼장이 번역한 본과 실차난타가 번역한 두 본이 있다. 다른 논서들에 비해 내용도 매우 간략한 편이다. 전문이 한자의 글자 수로 말하면 만여 자이다. 진제번역본은 10728자, 실차나타역본은 10765자로 30여 자가 더 많다.

전문의 내용이 5분으로 나눠지는데 논을 지은 이유를 밝힌 인연분과 주제를 제시하는 입의분, 제시된 주제를 자세히 풀이하는 해석분, 어떻게 믿는 마음을 내어 수행할 것인가를 밝힌 수행신심분, 그리고 수행을 권하고 이익을 말하는 권수이익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인연분에 들어가기 전에 삼보에 귀의하는 게송이 있다. 귀명게 혹은 귀경술의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논주 마명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면서 논을 짓는 뜻을 공손히 밝힌다. "목숨을

대승불교 개론서 〈대승기신론〉
2세기 무렵에 마명이 저술해
총 5분 나눠… 귀명게로 시작

던져 귀의하나이다. 언제 어디서다 가장 훌륭한 일 하시며,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아시며,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으시며, 세상을 구하고자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여! 목숨을 던져 귀의하나이다. 그 몸의 바탕의 참모습인 법의 성품 그대로 참되고 한결같은 진리의 바다여! 목숨을 던져 귀의하나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의 보고여 법답게 수행하는 구도자들이여!"

삼보에 귀의하는 지극한 예경을 올린 다음 논을 짓고자 하는 뜻을 다시 밝힌다.

"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그릇된 집착을 버려 대승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부처의 씨앗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귀명(歸命)이란 보통 귀의(歸依)와 같은 뜻으로 보며, 범어의 어원으로 말하면 'namas' 인데 이를 나무(南無) 혹은 나모(南謨)라 음사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뜻을 알아보면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귀투신명(歸投身命)으로 몸과 목숨을 던져 의탁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귀순교면(歸順敎命)으로 부처님의 교명에 따른다는 뜻이다. 그리고 셋째는 환귀본명(還歸本命)으로 목숨의 뿌리 명근(命根)을 그 근본에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이 귀명게에서 부처님을 설명한 말을 요약하면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이어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지혜로운 분이라 하였다. 또 활동에 장애가 없는 자유자재한 문이라 했고 세상을 구원해 주는 대자비의 주인공이라 했다. 이는 부처님을 온 중생계 전체에 교화의 영향을 끼치는 우주적인 인물로 묘사한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아 얻은 지혜 자체에 인격적 의미를 부여하여 의인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색신은 시간적으로 한정되거나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의 마음이다. 동체대비를 실천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원력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뭇 생명의 의지처가 되어 환자의 병을 보살펴주는 훌륭한 의사의 역할을 해주신다.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대비심을 동체대비라 한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어 온 누리를 밝혀주는 이가 부처님이고 이것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된다.

이 귀명게에서 묘사한 부처님을 대승의 부처님이라 할 수 있다. 대승경전의 부처님은 인간적인 상황에서 오는 약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법신이 의인화되어 등장하는 부처님이므로 아함경 등에서 묘사된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 예를 들면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몸이 피곤하여 사리불이나 가섭에게 대신 설법을 부탁하는 장면이라든지 부처님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흙의 뿌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승의 부처님은 색신이 완성된 모양과 빛깔로 이루어져 신체적 활동에 전혀 장애가 없으며, 어떤 상황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보시' 중요성 전하는 논장에 주목하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① 〈대장부론〉은 무엇인가

흔히 불법(佛法)을 팔만사천 법문이라 한다. 그 많은 법문 가운데 계율이 가장 먼저 송출 됐다. 계율을 제정의 목적은 승단의 유지와 수행자의 생활 규범의 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처님은 무엇 때문에 승단을 유지하려하였고, 수행자의 생활 규범을 제정하였는가 하는 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목적은 모든 수행자들의 성불, 즉 깨달음을 이루는 바탕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리라 여긴다. 따라서 오늘날도 모든 수행자들의 수행의 근본 목적은 역시 성불에 있어야 한다.

승단에 있어 중국의 선사상이나 한국의 선사상, 또는 선사상 이외에 교학에 있어서도 성불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출가의 의미도, 수행의 의미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불의 길은 한 가지인가? 그럴 리가 없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방법이며, 참선수행도 그 방법이며,

논사 제바라 보살의 〈대장부론〉
보살의 최고 실천행 '보시' 강조

경전의 말씀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 씀을 사유하는 것도 그 방법이며, 역대 선지식의 논장을 참구하여 수행하는 것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특히나 대승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는 성불은 개인의 성불이 아닌 모두의 성불, 즉 일체 중생과 더불어 성불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일체 중생의 성불은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 그 실천 방법에 있어 이미 '육바라밀'이 경전에 제시되어 있다. 육바라밀은 단지 성불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이 세상을 극락정토를 만드는 사상과 연계 되어 있다고 본다. 더불어 행복한 삶이다.

그 더불어 행복하고 더불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한 수많은 논장 가운데, 제바라보살의 〈대장부론(大丈夫論)〉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수대장경의 〈대장부론〉을 저본으로 해 원문을 번역하고 해설하여 성불의 의식과 실천행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장부론〉은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지었고 북량사문 도태(北凉沙門道泰)가 번역하였다고 전해진다. '제바라보살'은 '제바보살'과 같은 동일인이다. 제바보살의 〈대장부론〉은 용수보살의 중관학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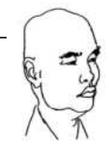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먼저, 제바(提婆)는 2~3세기경 남인도 출신의 중관학파(中觀學派) 논사(論師)이며, 용수보살의 제자로 많은 기행(奇行)과 일화가 있다.

도태(道泰)는 〈고승전〉 권3에 간략히 기록한 것이 있는데, '사문 도태(道泰)는 뜻이 굳세고 과단성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총우(𦘕, 파미르 고원)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고 기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려 한다.

〈대장부론〉의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보시'이다. 보시는 곧 보살행의 근간임을 제바라보살은 강조한다.

또한 '부처의 마음 쓰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부처의 마음을 쓰는 이가 곧 부처와 다름없는 이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보살행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실천행이 바로 보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能成種智果 施因爲最大(능히 심은 대로 지혜의 열매를 맺기에, 보시의 인연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대화에 대해

불교의 경전구성은 대화체로 돼 있다. 명령과 계시, 주입식인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화방식이다.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 쥔 주먹을 펴서 보이듯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논리와 표현을 갖춰 대화의 열린마당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는 또한 설법의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현실적으로 증험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둘째는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성질의 내용과 셋째는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과 넷째는 열반(궁극적 행복과 자유)으로 인도(引渡)하는 성질의 내용과 다섯째는 지혜있는 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내용으로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대화방식을 강조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대화의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대화의 단절은 이해의 결핍으로 이어진다. 이해의 결핍은 오해와 언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연결된다.

대화의 첫 덕목은 주장이 아닌 배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여, 대화가 없는 삶은 메마름을 더해가고 고독하여 우울증으로 빠져든다. 대화의 첫째 덕목은 주장이 아니라 배려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립서비스(lip-service)'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말로 베푸는 친절을 의미할게다. 그렇다면, 입으로 말하는 친절은 죽은 친절일 것이다.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실천이 백 마디 말보다 생명력이 있을 터이다.

사람은 사람일뿐이다. 손을 맞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격려해주는 눈빛, 용서해주는 미소, 사랑으로 가득한 몸짓은 또 하나의 살아있는 언어이겠기 때문이다. 승가(僧家)라는 말은 화합의 집단을 의미한다. 출가(出家)수행은 세속의 애착심을 접고 나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내가 가져온 물질과 재산으로 사찰이 운영되고 종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진데 속물근성의 아집(我執)부터 버릴 때이다. 선학원은 본래 뿌리가 조계종임에도 눈앞의 이해득실을 따져 버티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지 못한, 궤도를 이탈한 몸짓들이다. 출가수행자라면 비우고 버리며 떠나는 생활이 기본 덕목이 되어야 한다.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도 치러지는 게 아니라 봉행(奉行) 되어야 한다.

치러지는 것에는 주판알의 타산법이 끼어있기 마련이지만, 봉행(奉行)에는 순수한 신앙심이 평화와 자유와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순수해야 하고 종교의식도 속임이 아닌 드러난 진리와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전생의 빚, 삼재풀이 따위는 이제 경전중심으로 설법다운 설법에 의해 그 검은 그림자를 지워나가야 한다. 내용도 시원치 않는 설법을 하면서도 기를 쓰고 법상에 오른다던지 주장자를 높이 치켜세워야 설법의 품격도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 했다면 그는 수행력은커녕 제도받아야 할 중생일게 분명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거리에서, 앉아서, 서서 중생들의 눈높이에서 쥔 주먹도 펴서 보이며 묻고 답하고 우월과 열등감 없이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불교의 삼보(三寶)는 부처님과 경전과 스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큰 자유가 부처님이요, 큰 평등이 경전이며, 큰 평화가 스님이겠기 때문이다.

불교의 방생(放生)은 비닐봉지에 담아 온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강물에 풀어주는 것보다 굽은 곳을 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데, 그 참의미의 생명력이 있을 터이다.

어느 스님이 어느 사찰이나 신행단체에 초청되어 설법할 경우에도, 제발이지 주최측에서 내미는 봉투나 물질은 사양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해야한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여유있는 생활과 모습은 또 다른 언어이자 대화법이다.

'립서비스'라는 단어가 공염불(空念佛)과 혼용되질 않길 바랄뿐이다. 목탁소리도, 범종소리도 또 다른 언어이자 살아 움직이는 대화로 자유와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방편을 앞세운 변명보다는 경전정신을 되살리는 대화다운 대화가 그리운 오늘이다.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 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빠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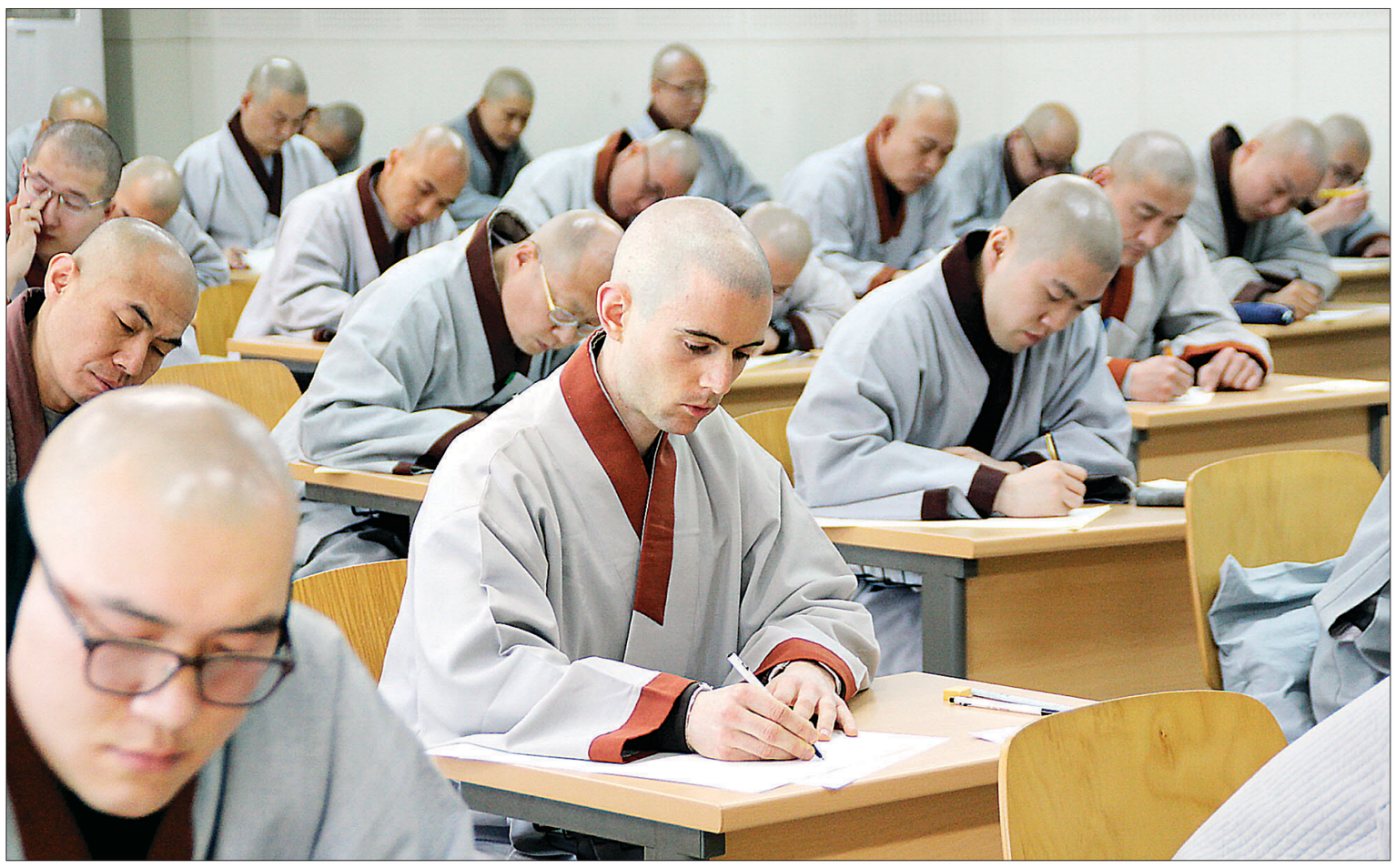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三門 수행방식 체계화… 현대 불교에 영향

〈선·교·염불〉

24. 선교융합: 이력과정과 삼문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 수행방안은 17세기 전반에 정비된 승려 교육과정인 이력과정에 반영돼 조선후기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세기에는 문파와 같은 교단 조직이 형성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되면서 이를 토대로 선교겸수(禪敎兼修)의 방향과 간화선의 선양을 기조로 한 승려 교육과정과 수행체계가 확립되는 등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 청허계(淸虛系)의 조사이자 조선중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청허 휴정은 〈선가귀감(禪家龜鑑)〉 등 많은 저술을 남겼고 이후 교단의 사상 및 수행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학을 입문으로 삼아 선과 교를 함께 수행하되 지해(知解)에 얽매이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간화선의 화두를 참구하라는 '사교입선(捨敎入禪)' 방식을 주창하였다. 그 요체는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 수행방안으로써 이는 17세기 전반에 정비된 승려 교육과정, 즉 이력과정(履歷課程)에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후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강원 교육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력과정은 크게 사집(四集), 사교(四敎), 대교(大敎) 과정으로 나뉘는데, 먼저 사집 과정은 고봉 원묘의 〈고봉선요(高峯禪要)〉, 대혜 종고의 〈대혜서장(大慧書狀)〉, 규봉 종밀의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종밀의 저술에 보조 지눌이 주석을 붙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이다.

앞의 〈선요〉와 〈서장〉은 중국 임제종 승려의 어록과 서간문으로 간화선풍의 습득과 함양을 위한 책이었다. 송대의 대혜 종고는 간화선의 주창자로서 지눌 또한 그의 〈어록〉을 읽고 계발되어 간화선을 수용한 바 있으며 고봉 원묘는 간화선풍을 체계화시킨 원대의 승려로서 여말선초 이후의 선풍에 큰 영향을 미쳤다. 뒤의 〈도서〉와 〈절요〉는 선교일치를 제창한 종밀의 저술과 그에 대한 지눌의 주석서로써 정혜쌍수(定慧雙修), 돈오점수(頓悟漸修)에 입각한 선교겸수론을 그 요체로 한다. 즉 사집의 구성은 교학을 방편으로 용인한 선교겸수적 지향과 함께 지해에 얽매이지 않는 간화선의 선양을 그 요체로 하며 이는 지눌의 수행체계 및 방식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다음 사교과는 처음에 〈금강경(金剛經)〉, 〈능엄경(楞嚴經)〉, 〈원각경(圓覺經)〉, 〈법화경(法華經)〉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책들은 이전부터 매우 중시된 경전들이었다. 그 중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은 마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써 선종 성립의 이론적 토대를 닦은 경전이거나 선교일치의 소의 경전으로 송대 이후 크게 각광 받은 책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구조를 분석하고 본체와 작용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시킨 것으로 선종과 교종 모두에서 중시된 경전이었다. 〈법화경〉은 일승사상인 천태교학의 소의경전으로 신라, 고려에서도 널리 읽혔고 조선 전기에는 불교 의례나 신앙 면에서 중시되었다. 하지만 18세기 이전에 사교과에서 〈법화경〉이 제외되고 대신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 들어갔는데, 〈기신론〉은 여래장(如來藏)과 유식(唯識)사상을 종합하여 일심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논서로써 동아시아 교학 발전상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이는 논리적, 분석적 성격이 강하여 강원 교육에 보다 적합한 교재였고, 또 17세기 후반 이후 화엄교학의 연구와 강학이 대세가 되면서 선과 교의 공통 관심사인 마음의 구조를 밝힌 〈기신론〉이 〈법화경〉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교과에는 〈화엄경(華嚴經)〉,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선문염송(禪門拈頌)〉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경서는 조선전기 승과(僧科)의 시험 교재였고 교종과 선종에서 가장 중시된 책들이었다. 화엄은 최고의 일승사상으로써 교종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 이력과정에서도 이전부터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여 최고 단계인 대교과에 편입된 것이다. 〈전등록〉은 11세기 초에 나온 선종 계보서로써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선종 계보를 망라한 전등사서(傳燈史書)이다. 다음 〈선문염송〉은 지눌의 제자인 진각 혜심(1178-1234)이 간화선 수행기풍의 진작을 위해 편찬한 책으로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법어, 게송 등을 수록한 것이다.

간화선 중심 수행법 이력과정 반영
마음-이치-조사풍 습득 순 정리
종합적 성격 삼문체계 필요 따라
교단 결속력 · 선종 정체성 다져

이력과정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보면 종밀에서 지눌로 이어지는 선교겸수의 전통과 고려 말 이후 주류가 된 임제종 간화선풍의 결합 양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사집과의 구성은 선교겸수와 간화선풍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교과도 선종과 교종 모두에서 중시된 마음과 관련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교과는 교학의 대표인 화엄과 선의 기풍 및 역사를 보여주는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선교겸수, 화엄, 간화선을 동시에 중시한 지눌의 사상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었고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라고 하는 휴정의 수행 방향과도 부합하는 체계였다. 또한 간화선과 임제법통, 선교겸수와 화엄교학은 내용상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지만 선종을 표방하면서도 선종과 교학 전통을 함께 계승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력과정의 구성은 마음[心]-이치[理]-조사풍의 습득[史] 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의리[理]를 파악하고 마음을 수양한 후 역사서를 통해 식견을 기르는 율곡 이이(1536-1584)의 성리학 독서순서와 유사한 체계였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논어〉, 〈맹자〉 등의 사서를 언해하고 성리학 학습의 방향을 제시했던 이이는 "오서, 오경은 이회(理會)와 의리를 얻는 것이고 성리서는 의리가 마음에 항상 젖어들게 만드는 것이며 사서는 고금의 사변에 통달하여 식견을 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력과정에 대한 영월 청학의 해설을 보면, "사교는 경전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사집은 점수와 참구를 통해 마음의 깨우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대교(大敎) 〈전등록(傳燈錄)〉과 〈염송(拈頌)〉은 조사풍을 배워 올바른 수행방향을 알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문과 과거에서 '사경교의'와 '사서의심'을 시험 보았음을 고려하면 이력과정의 구성과 명칭이 유교사회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배태되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선과 교의 겸수와 함께 염불도 수행체계 안에 포섭되었다. 휴정은 선, 교, 염불의 삼문을 제시하였고 편양 언기가 이를 체계화 하였는데 그에 의해 선, 교, 염불의 삼문은 각각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염불문(念佛門)에 배당되었다. 이 삼문체계는 격외선풍인 선문의 간화선, 본래의 마음을 반조하는 교학, 자성미타(自性彌陀)의 염불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중생의 근기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법은 하나의 일심에서 나오므로 삼문이 동일하다는 인식이 표명되었다.

당시에는 공인된 종파가 없이 모든 불교전통을 포섭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 성격의 삼문체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수행방식을 다 통합하는 '전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중심으로 교학과 염불수행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의 포괄적 종합이었다. 즉 무조건적인 통합이나 무분별한 회통이라기보다 각 수행방식의 독자성이 용인되는 열려있는 공존 체계로 해석된다. 1769년에 나온 〈삼문직지〉에서는 "삼문이 서로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하여, 근원적 일치와 개별적 차이의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선, 교, 염불의 전통이 모두 명맥을 이어나갔고 하나의 수행에 집중하는 '전수'를 기본 전제로 다른 수행방식도 겸하는 '겸수'의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

휴정은 〈심법요초〉에서 선의 '참선문'과 함께 '염불문'을 설명하면서 '원돈문'의 사구(死句)가 아닌 '경절문'의 활구를 참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유심정토와 사방정토를 동시에 언급하였다. 이를 계승한 언기는 경절문, 원돈문, 염불문의 삼문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경절문을 '상근기를 위해 마음을 가리키는 격외선풍의 선문', 원돈문은 '하근기를 위해 의리를 세워 언어로 이해하게 하는 교문', 염불문은 '서방정토를 염상하는 염불법으로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본성이 바로 미타'라고 정의하고 수행의 측면에서 염불선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격외선풍의 간화선, 본래의 마음을 비추고 반조하는 교학, 자성미타의 염불수행을 구조화한 것이었는데, 언기는 중생의 근기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법은 일심에서 나오므로 삼문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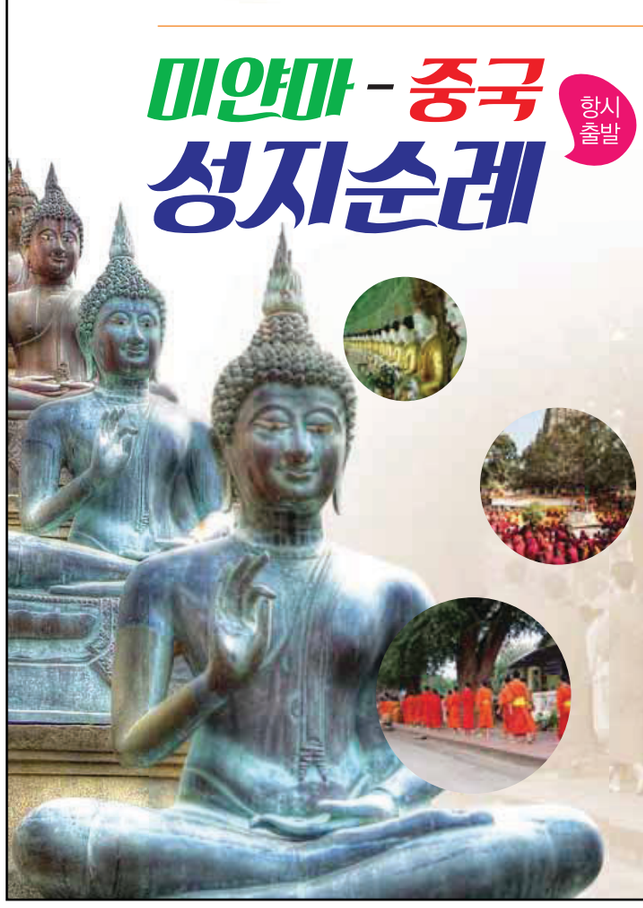
앞서 지눌이 수립한 '성적등지문, 원돈신해문, 간화경절문'의 삼문은 정혜쌍수와 돈오점수의 선교융합을 기조로 상부구조에 간화선 수행을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후기의 삼문은 간화경절문은 같지만 원돈문은 교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지눌의 삼문에는 없는 염불문이 들어간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을 포괄해야 했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모든 수행방식을 필수적으로 다 해야 하는 '전수(全修)'는 아니었다. 즉 각 수행방식의 '전수(專修)'를 전제로 한 겸수와 공존의 추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후 진허 팔관의 〈삼문직지〉(1769)에서도 "삼문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라고 하여, 근원적 일치와 각 수행법의 독자성을 동시에 인정하였다.

이처럼 17세기에는 문파 조직과 경제적 토대 구축의 기반 위에서 법통을 통해 교단의 결속력과 선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졌고, 나아가 선과 교의 수행 및 사상 전통을 동시에 계승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변화는 조선후기 불교의 원형 성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이때 형성된 전통은 근대기까지 큰 변동 없이 이어졌다.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항시 출발



선불 선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출소일보다는 지금 현재가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美 오리건주(州) 지역 교도소 명상교실 ‘인기’

펜들턴 · 투리버스 교도소서
명상교실 주1회 열려
재소자 평균 16~18명 참가
우울증, 분노조절 완화 체험

미국 오리건 주(州) 펜들턴시 지역 교도소에 명상바람이 불고 있다. 교도소 명상교실서 참선, 걸음 명상 등 실시하며 재소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펜들턴시 오리건 주 내에 있는 ‘동 오리건 펜들턴 교도소’와 ‘투 리버스 교도소’는 명상공간을 확보하고, 재소자들을 위한 명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2곳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조 엥검(Joe Engum · 66) 씨는 교도소 내 명상교실을 연 일등공신이다.

엥검 씨는 2007년 무렵 달마레인 선 센터 스님에게 오리건주 유머틸러시(市)에 있는 한 교도소의 명상그룹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달마레인 스님은 “이미 오리건 교도소에서 1년에 수차례 명상 워크숍 지도를 하고 있어 바쁘다”며 엥검 씨에게 투 리버스 교도소 명상교실을 직접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엥검 씨는 흔쾌히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투 리버스 교도소의 명상교실 지도 법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월 1회 수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엥검 씨는 “재소자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선 월 1회 수업 시간은 부족하다”고 느끼며, 수업을 주 1회로 늘리기 시작했다. 이후 동 오리건 펜들턴 교도소 내 명상교실 지도 법사도 자원해 매주 수 · 목요일마다 각각 2곳 교도소에서 저녁 명상을 지도했다.

엥검 씨는 명상에 대해 “나를 이끄는 ‘참 나’ 매뉴얼을 읽는 것과 같다”고 정의를 내렸다.

“저는 지도 법사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 경험과 수행담을 그들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선불교는 어떤 하나의 믿음체계나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수행자들이 명상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돌아보고 이해하면서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죠.”

엥검 씨가 지도하는 수행법은 간단하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은 뒤 척추를 꼿꼿이 세워 앉아 긴장을 이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하려고 시도하다 보며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명상 수행은 눈을 감고 앉아있어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엥검 씨는 “우리는 명상을 통해 깨어있음을 자각하고 감각과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조리법을 읽는다고 음식의 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직접 맛을 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명상도 그냥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16~18명의 재소자들이 매주 열리는 명상교실에 참여해 좌선, 걸음걸이 명상을 하고 있다. 걸음걸이 명상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

사진출처=이스트오리고니언

수업방식은 간단하다. 재소자들이 의자와 방석을 원형으로 맞추어 놓은 뒤 자리에 앉으면, 엥검 씨가 타종으로 명상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참가자들은 30분 동안 참선을 한 뒤, 10분 동안 걸음명상을 한다. 이 후 또 다시 30분 간 참선에 들어간다.

수행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아디야샨티의 ‘자유의 길’이란 책을 읽고 토론하고 명상 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한다.

투 리버스 교도소 명상교실은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로 재소자들에게 인기 있는 수업이다. 동 오리건 교도소에도 매주 22~24명의 재소자들이 명상교실에 참가한다. 엥검 씨는 “매주 평균적으로 16~18명의 재소자들이 매주 명상교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명상공간이 더욱 확충돼 더 많은 재소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재소자들은 매주 명상모임에 참여해 만성불안과 우울증을 떨치고 분노를 조절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6년 전 투 리버스 교도소에 입소한 팀 클리멘츠(60) 씨는 명상교실의 핵심 멤버다. 그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명상을 통해 조절하고 있다.

“우울증세가 시작되면 무기력해지고 위축되는 것을 느끼는데, 명상을 통해 저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정적 기운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을 약 대신 명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리멘츠 씨는 명상수행으로 순간에 집중하고 머물 수 있는 힘을 길러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소문이나 루머에 휩싸이지 않게 됐다.

투 리버스 교도소 재소자인 스캇 스트릭랜드(61) 씨는 명상교실에 수년간 참여해왔다. 만성적 불안 증세를 보이던 그는 우울증 까지 겹친 상태에서 명상으로 새 삶을 얻었다. 스트릭랜드 씨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감지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명상 덕분에 답답한 감옥 생활이 자유롭게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출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그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엥검 씨가 재소자들의 마음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던 것은 스스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엥검 씨는 20여 년 전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황폐해지는 일을 겪게 됐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불교 책을 접했다 스스로를 선불교도라고 말하는 그는 일본 무술인 가라테를 배우면서 선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가라테에서는 불교와 비슷하게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절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엥검 씨는 선불교 지도법사가 됐고, 포틀랜드에 있는 달마레인(Dharma Rain) 선 센터와 20여 년간 인연을 맺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엥검 씨는 명상 수행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재소자들을 보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자 기쁨이라고 말한다.

“명상 수행은 재소자들의 삶을 확장시켜주고 상황이나 문제에 반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명상을 할 수 있게 된 인연에 그저 감사할 뿐이며, 사람들에게 명상을 알려주는 것은 저에게 더없는 기쁨입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서 기원전 3세기 불교유물 발견 학계 ‘주목’

“천 년간 번성한 불교문화 확인할 수 있을 것”



인도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의 내륙지방에서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물은 점토로 빚어진 코끼리 머리와 토기, 지문모양으로 장식된 도자기 등이다.

사진출처=더 힌두

인도 해안 지역에서 점토로 빚어진 코끼리 머리와 토기, 지문모양으로 장식된 도자기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불교유물이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 일간지 ‘더 힌두(The Hindu)’는 구랍 20일(현지시간) “인도 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내륙지방에서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물은 점토로 빚어진 코끼리 머리와 토기, 지문모양으로 장식된 도자기 등”이라며 “전문가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8세기까지 약 1천년 동안 이 지역서 불교문화가 번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물이 발견된 장소는 봄밀리(Vommili) 언덕 근처로, 학계는 오랜 시절 불교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밀교의 상징인 헤루카(Heruka:大悲空智明王)를 형상화한 코끼리 점토유물이 마을주민들이 숭배하는 나무 밑에서 발견됐다. 또한 유물이 발견된 곳 주변에서 질그릇 조각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이에 따라 발굴단은 추후 더 많은 유물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은 뒤 본격 조사에 나섰다.

조사의 총 지휘를 맡은 치티 바부(K. Chitti Babu) 위원장은 “비사카파트남 내륙 지방에서는 불교유물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8세기까지 번성한 불교문화를 유물 발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기존 불교유물의 대부분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의 것으로 인도 북동부지역 해안을 따라 있는 스리카쿨람(Srikakulam), 비지아나가람(Vizianagaram),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지역에서 발굴 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지역은 비사카파트남에서 좀 더 들어간 내륙지방으로 약 천년동안 불교문화의 번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교 名山 우타이 ‘직통 하늘길’ 열렸다

구랍 25일 운영 시작… 연 35만 승객 유치 목표

불교 명산 우타이산(五臺山)에 공항이 신설되며, 관광객들이 우타이산에 바로 착륙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언론 ‘상해일보(Shanghai-Daily)’는 구랍 25일 “관광객들이 중국의 불교 명산으로 알려진 우타이산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됐다”면서 신규 공항 건설 사실을 보도했다. 우타이산(五臺山)은 포광사(佛光寺)의 동쪽 본전을 비롯한 41개 사원이 위치해 1천여 년이 넘은 불교 사원들이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상해일보’는 “중국 하이난성의 하이커우(Haikou) 도시서 출발한 에어버스320 비행기가 25일 아침 산시성(Shanxi)에 있는 우타이산 공항에 도착했다”면서 “이것은 공항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설명했다.



우타이산(五臺山)에 공항이 신설됐다.

사진출처=baike.baidu.com

보도에 따르면 우타이산 공항은 중심 경관지역으로부터 7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항공편은 매주 월 · 수 · 금 · 일요일 운영된다. 공항 측은 추후 상하이 · 다롄 · 쿤밍 · 청두 지역을 포함한 중국 주요도시와 연결되는 항공 경로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2020년 내에 해마다 약 35만 승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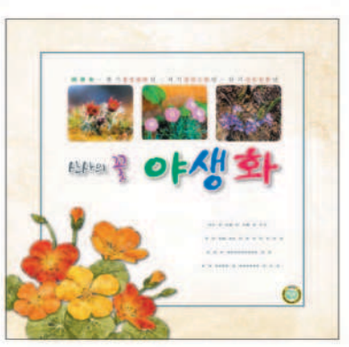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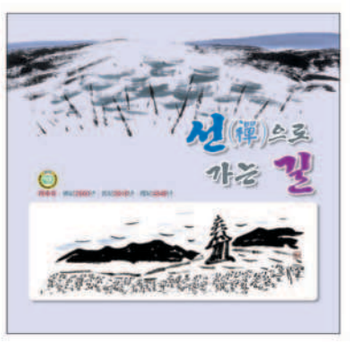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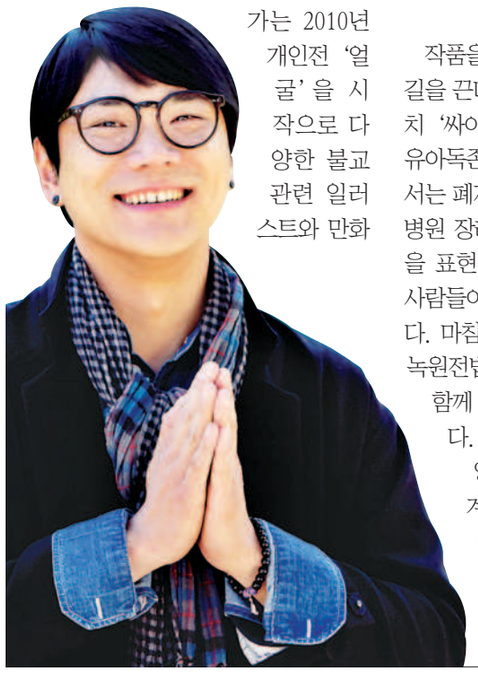


유럽에서 신개념 '붓다'를 만나다

양경수 작가, 네덜란드서 '위대한 붓다전' 개최

현대미술작가인 양경수 씨(33, 사진)가 네덜란드에서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을 선보여 화제다.

양경수 작가는 네덜란드 국립 세계문화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2월 11일부터 8월까지 네덜란드 레이덴에서,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암스테르담에서 1년간 '위대한 붓다' 전을 단독 개최한다. 여기서는 카툰으로된 양 작가의 부처님 팔상도가 전시된다. 네덜란드 국립 세계문화박물관 초청은 한국 최초다.



단청장인 아버지와 불화가인 어머니를 둔 양경수 작가는 2010년 개인전 '얼굴'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교 관련 일러스트와 만화를 그려왔다. 대표작은 이번 전시작인 '팔상도'. 이 팔상도에는 단청과 불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채색 기법이 쓰였다.

2014년 불교박람회 '붓다아트페스티벌'에 출품해 화제가 된 이 작품은 부처님 일대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선보인다. 당시 기존 회화의 고리타분함을 벗어던지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끄는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팔상성도, 카툰으로 재해석
화려한 색채, 현대적 감각 돋보여

작품을 뜯어보면 현대적인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람강생상에서 부처님은 마치 '싸이'와 같이 춤을 추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다. 사문유관상에서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서 늙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한다. 부처님이 수행한 설산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폐차장으로 묘사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전법에 나선 녹원전법상에서 부처님은 모든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DJ로 표현됐다.

양 작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까'는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사실 양 작가는 그 누구보다 불교전통을 오랫동안 접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개금하는 불상들 틈에 놀았으며 단청안료는 그의 색칠공부 재료였다. 중학교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 불사현장에서 일을 도왔다.

"하지만 정작 산속 깊은 사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싫었죠. 부모님의 뜻대로 단청기술자가 되는 것도 거부감이 들었어요. 결국 반대에도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이에 양 작가는 2002년 추계예술대에 입학해 서양화를 공부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물든 불교의 색채는 빠지지 않았다. 군 제대 후 인테리어 일을 하던 그는 형의 사망소식에 다시 불교미술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는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감각과, 서양화의 기풍, 불교사상이 함께 녹아 있다.

2014년 만화로 불교를 전하는 '만만한 뉴스' 창립 멤버로도 활동한 양 작가는 그동안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환우를 위한 불교카툰전 등 불교계 안팎의 활동을 이어왔다. 양 작가는 향후 해외전시 등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도 구글 검색을 통해 저의 작품을 본 박물관 측에서 요청하며 이뤄졌습니다. 불교와는 동떨어져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의외로 불교를 알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을 DJ로 표현한 양경수 작가의 '녹원전법상'. 네덜란드에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습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지구의 재해석

전북도립미술관 2월 14일까지 '백제의 재발견'展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현대미술로 새롭게 해석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올해 2월 14일까지 미술관 1~5전시실에서 '백제의 재발견-현대미술 리포트'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전에는 김범석, 김윤식, 김인경, 박경식, 박방영, 박인현, 박하선, 서기문, 서용선, 윤남웅, 이상조, 이성원, 이승우, 이진경, 이철규, 이철량, 이희춘, 임동식, 정운학, 최재석 등 현대미술가 20명의 작가가 98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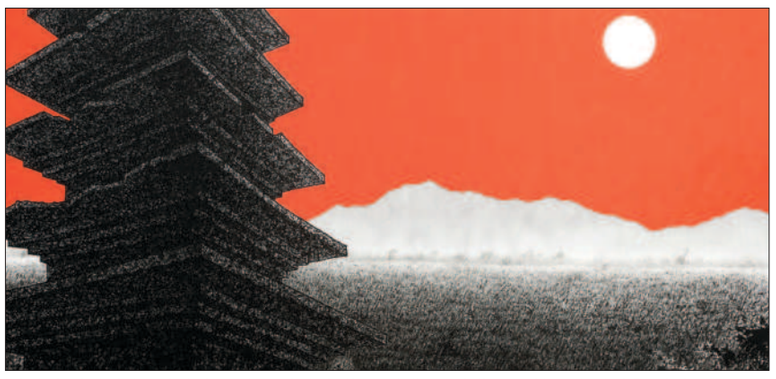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백제'를 재해석하고 그 역사성과 지역성을 새로운 가치로 드러내고자하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이들 작가들은 역사적인 사실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익산 왕궁리 유적와 미륵사지, 부여의 부소산성지구,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등 현장답사를 다니고 역사학자의 자문을 구하는 등 꼼꼼한 작업과정을 거쳤다.

먼저 김범석 작가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느낀 감정을 형상화한 '백제의 숨 1-왕궁리'를 선보인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땅 밑에서 숨을 쉬는 백제 유물들을 작품 속에 담았다. 또 만경강을 따라 백제 왕궁으로 들어왔던 배들과 그 정취를 표현했다.

박인현 작가(전북대 교수)는 오방색을 활용해 계획도시였던 백제 마지막 수도 익산을 표현했다. 중앙의 황색과 함께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분위기로 채색했다. 중앙은 백제 무왕 왕궁터를 상징하며 동쪽은 제석사, 서쪽의 쌍릉, 남쪽 금만평야, 북쪽의 미륵사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전시전을 여는 장석원 전북도립미술관장은 "역사와 사회를 근거로 예술을 하지만 그 결과와 예술적 가치는 다채롭고 새로우니 모처럼 깔린 백제라는 무대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박인현 작가의 '모악산이 보이는 만경평야' 오방색 중 적색으로 왕궁리 석탑을 배경으로 드넓은 익산지역 평야를 그려냈다.

새해에는 사경 작품보고 발원을

한국전통사경硏, 1월 7~12일 작가 9인 초대전

한국전통사경연구원(원장 김경호)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1C 한국사경 정예작가 9인 초대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강경애, 강충모, 김명림, 김영애, 박경빈, 박계준, 윤경남, 조미영, 허유지 작가가 초청돼 총 350점에 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전국 서예공모전 중 가장 권위있는 서예문화대전서 초청작가로 활동했으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등에 초청된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작가들이다. 조미영 작가의 경우 전통사경 기능계승자이기도 하다.



조미영 作 '오늘의 기도'

작품들은 전통사경의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 등 모든 양식을 총 망라했다. 병풍과 가리개, 화첩 등도 출품된다. (02)335-2186 노덕현 기자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3월 24일 개막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 주제로 SETEC서 개최

한국 전통과 불교문화의 현재를 엿볼 수 있는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펼쳐진다.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전시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박람회 인증을 받은 결과다.

참여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소품, 수행용품, 차 · 다기, 사찰음식, 옷 · 액세서리, 수행, 명상, 복지, NGO 출판 · 웹 IT 디자인, 미디어, 여행, 장례업체 등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처음 진행된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및 신상품전이 확대돼 총 3개 업체에 상금, 홍보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조형불사' 분야가 새롭게 기획돼 전통불사와 현대적 불사 등 관련업체와 작가들이 기술을 선보인다. 또 서울국제박람회의 특별 섹션인 붓다아트페스티벌에서는 동국불교미술인회의 불사특별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계자는 "해마다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관람객들에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연극 '이뭣꼬', 3월 일본 진출한다

불교창작연극 '이뭣꼬!'가 올해 3월 일본으로 진출한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대표 정광진)는 3월 초 일본 스님과 불자교민들을 대상으로 교토, 오사카, 나라, 고베 등 일본 현지에서 창작연극 '이뭣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불교극작가인 정광진 대표가 극본과 예술감독을 맡은 '이뭣꼬'는 2011년 故 강태기 씨가 주인공 무명 스님 역을 맡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지난해 10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경주, 부산, 창원 등지에서 공연이 진행됐다. 총 6000여 명이 관람하며 호평을 얻었다.

정광진 대표는 "일본에서 온 한 스님이 공연을 보고 교포 불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일본 공연을 부탁했다. 현지 사찰과 불자교민회 등과 연계해 일본 4개 지역에서 모두 4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창작연극 '이뭣꼬'의 한장면.

이와 함께 3월 13일에는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3월 17~18일 제주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 3월 26일 김천문화회관, 3월 27일 구미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02)764-5057 노덕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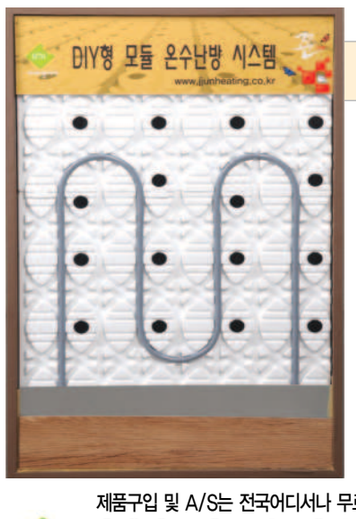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www.jjunheating.co.kr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23~2015.12.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2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3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4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5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6	조용헌의 휴휴명당	조용헌	불광출판사
7	불교범어진언집	박지명/이서경	하남
8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9	금강경을읽는즐거움(위로와응원이빛나는)	일감스님	민족사
10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한국불교의 빈틈을 메우는 계기로”

고영섭 교수, 〈삼국유사 인문학유행〉 등 세권 펴내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후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해석이 수반돼야 하지만 대부분은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불교사 연구에서도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최근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불교사에 관한 책 세권을 펴내 눈길을 끈다. ‘삼국유사 인문학유행’, ‘분황 원효’, ‘한국불교사탐구’ (이상 박문사)가 그 것이다. 이들 책은 한국불교사의 연구방법론부터 그동안 설화로만 전해지는 삼국유사와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고 교수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관통하는 인물, 사상, 사찰, 지역, 제도 등을 광범위 하게 다뤘다.



한국불교사 연구방법론 부터
구전되는 삼국유사 연구내용 담아
인물, 사상, 제도 등 총망라해

십국유사로 확장된 〈삼국유사〉

고영섭 지음 | 박문사 펴냄 | 4만 6천원



고영섭 교수는 먼저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에서 〈삼국유사〉를 한국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으로까지 평가한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가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다룬 기본 서적임에도 정작 읽는 사람이 없음을 개탄하며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총 81장에 걸쳐 설명한다.

고 교수는 특히 〈삼국유사〉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세 나라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고조선부터 북부여 위만조선 등에 이어 말갈 등 20여개국의 인물과 유적, 설화 등에서의 연원과 흐름을 개괄한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 속에는 당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새롭게 이름을 붙인다면 ‘십국유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신라 관계 사적의 오류를 바로잡는데 〈삼국유사〉가 기여할 수 있다. 일연 스님도 전편의 절반을 이에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삼국유사〉는 개별의 설화가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이 되기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속에는 이런 〈삼국유사〉 속에 담긴 재미있는 내용이 색다른 해석과 함께 담겨있다.

가령 ‘무열왕이 태종으로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에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김유신과의 혈연동맹에 대한 ‘가야세력과 신라세력의 연합’이란 새로운 해석과 함께 후에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의 인연의 배경으로 김춘추가 있음을 들고 그를 대외교가로 평가한다.

원효의 사상가 면모 조명한 〈분황 원효〉

고영섭 지음 | 박문사 펴냄 | 2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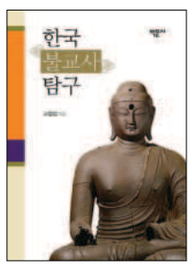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는 〈분황 원효〉에서는 원효 스님의 방대한 저작을 쉽게 풀어냈다. 고 교수는 원효 스님을 동아시아 대사상가이자 대자유인으로 그려낸다. 총 103부 208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법신사리 또한 이 자유에서 나온 것임에 착안해 고 교수 또한 에세이 형식을 빌어 그 글 속에서 자유와 재미를 느끼게 한다.

고영섭 교수는 “이 책을 쓰며 원효 스님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불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다”며 “원효 스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분황 원효〉 속의 ‘젊은날의 초상’ 편을 보아도 고 교수의 이런 마음은 잘 들어난다. 낭지법사와 혜공 스님, 보덕 스님을 조명한 이 글에서 ‘분황에게 일정한 스승은 없었다. 다만 몇몇 길라잡이는 있었다. 우리 도처에는 수많은 스승이 숨어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고 말한다. “원효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내게 ‘의미’와 ‘재미’를 샘솟게 해준 광맥이었다”는 고 교수는 불자들이 시대의 지식인이었던 원효 스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주체적 사관 드러난 〈한국불교사탐구〉

고영섭 지음 | 박문사 펴냄 | 4만 9천원



이와 함께 펴낸 〈한국불교사탐구〉는 종래의 한국불교사 통사류에서 빠져있는 주체적 사관이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고 교수는 불교가 어떻게 한국사상의 고유성에 기여하는지를 염두에 두며 한국사와 한국불교사의 접점, 한국불교와 국가, 역사 인물, 시대정신 등의 4분야에 걸쳐 논지를 전개한다. 고 교수는 그 이면에 한국불교가 ‘실천’의 인도불교와 ‘교학’의 중국불교를 받아들여 이를 치우침 없이 아우르는 한국만의 불교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불교사의 각 영역에서도 고유의 독자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통념에서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통일신라시대도 대발해가 병존한 ‘남북국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어 고 교수는 불교의 호국과 호법, 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미, 오대총림 연구 등도 차례로 조명했다. 또 조선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을 통해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폈다.

또 고 교수는 책에서 그동안 한국불교사 연구가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의 연구에만 치중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사상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역할을 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도 출가자 중심이 아닌 사부대중,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확장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고영섭 교수는 “비구 외에도 비구니, 거사, 부인들을 발굴하고, 그 존재를 사료를 통해 복원해 한국불교사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불교통사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기술방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업설, 연기설, 중도 등 사관의 확고한 정립과 사부대중에 대한 조명, 세계사와 연관된 쟁점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한국불교사의 빈틈을 채워나간다는 관점에서 책을 저술했다. 한국불교 연구의 새로운 기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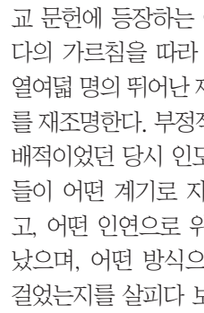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저자 고영섭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불교사학회 및 한국불교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 〈한국불학사〉, 〈한국불교사연구〉, 〈원효탐색〉, 〈한국의 사상가 10인 원효〉 등이 있다.

초기경전과 주석서에 등장하는 1백여 여성 그중 붓다가 칭송한 18명 가려 뽑아 소개

붓다의 길을 걷는 여성

옥복연 · 이미령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1만 5천원



붓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진지한 구도적 삶을 살았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주목받지 못한 수행자가 있다. 이 책에는 뛰어나지만 그동안 조명되지 않던 여성 수행자 열여덟 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동안 붓다를 만난 인물을 조명한 도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여성 인물만을 다룬 도서는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세속에 머물며 붓다의 가르침을 따른 여성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한 채 기록에만 남겨져 있었다.

이 책은 초기경전과 주석서 등의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구도의 길을 간 열여덟 명의 뛰어난 재가 여성 수행자를 재조명한다. 부정적인 여성관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인도 사회에서 그녀들이 어떤 계기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떤 인연으로 위대한 스승을 만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구도의 길을 걸었는지를 살피다 보면 붓다의 인간 평등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붓다 재세 당시 인도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이면서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 속에서 여성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아버지, 남편, 아들과 같은 남성에게 종속된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오염 투성이’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붓다는 여성을 교단으로 받아들여 남성과 동등하게 출가를 허용했으며, 재가 여성에게도 자상하게 가르침을 전했다. 여기에는 여성 역시 수행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경전과 주석서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100여 명. 그중 이 책에 담긴 열여덟 명의 여성은 뛰어난 수행으로 붓다의 칭송을 받았다. ‘교단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교단 발전에 헌신적이면서 여성 불자들의 리더 역할을 한 위사카, 평등심과 자매애를 몸소 실천한 사마와띠, 자신의 장애와 신분을 극복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편 쿳줏따라 등은 가정에 속한 아내이자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딸이지만 남성 못지않은, 때로는 남성보다 뛰어난 수행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들의 뛰어난 면모는 여성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기던 기존의 편견과 주장에 반박하고 ‘치마불교’ ‘기복불교’로 치부되던 여성의 신행과 수행에 대해 재평가하여 ‘모든 인간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여러 해 동안 초기경전에 관심 갖고 살핀 두 저자는 여성이 태생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지게 됐을 뿐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불교

위사카, 사마와띠 등 조명
여성의 신행과 수행 재평가

경전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의 이웃종교,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어떻게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비교, 서술한다. 그리하여 남성중심사회의 전통이나 관습 등으로 인해 붓다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생명 존중의 사상은 사라지게 됐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며 뛰어난 여성은 타자 혹은 주변인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었음을 밝힌다.

이 책은 결과적으로 “남성보다 더 치열하고 성숙한 수행의 삶을 살아간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계 인구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 특히 세속을 떠나지 않고도 바른 길로 걸어온 여성 불자를 치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로써 이 시대의 여성 불자 모두에게 앞으로도 진지한 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부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신심과 원력의 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2016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 시험과목 _ 면접, 사미니율의, 불교 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 (장삼 · 만의 착용) 2매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도착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시험일시 _ 2016년 1월 29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 교 통 편 _ 대구 남부 버스정류장에서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 운문사행 시외버스 수시 운행(운행간격 1시간)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연수교육사항
① 2학년 수료 후 대만불교연수
②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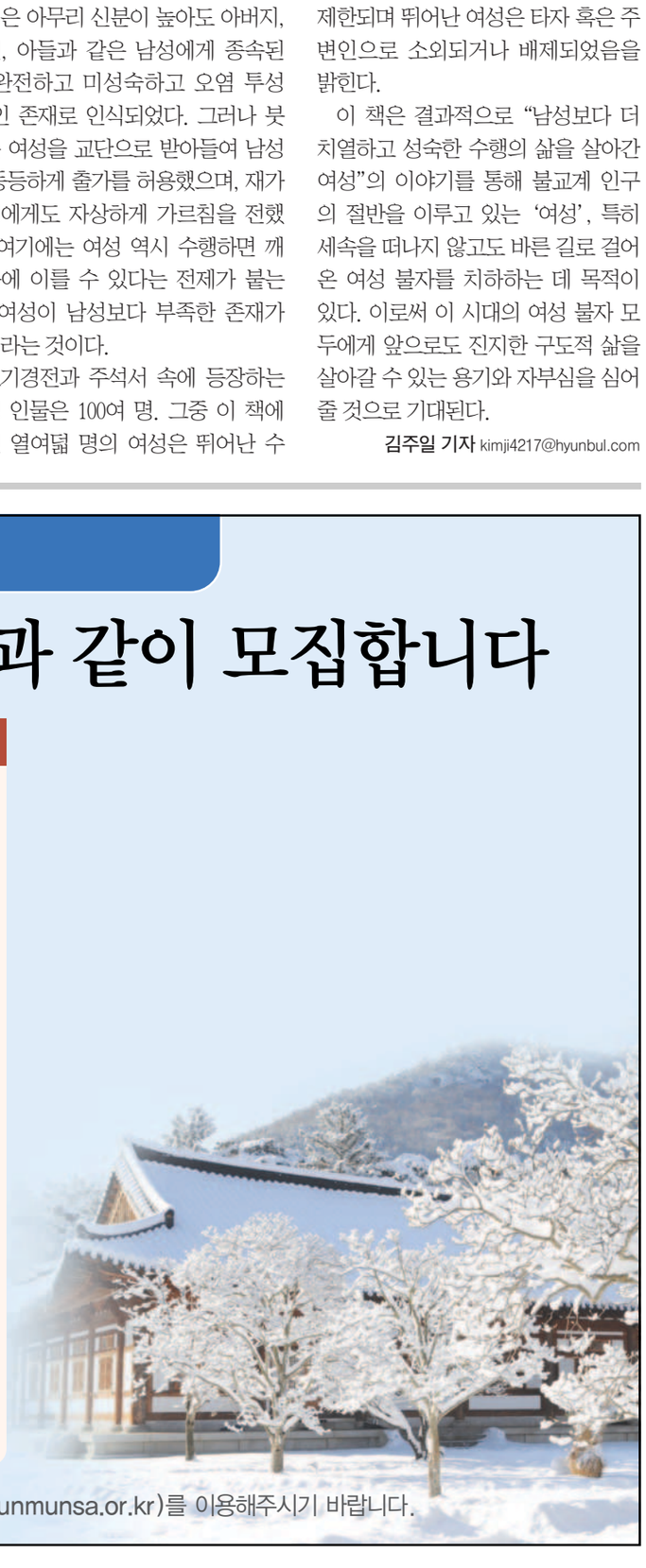
운문사 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일진 주지 진광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모집대상 _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6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집인원 _ ○○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6) 증명사진 2매
- 모집기간 _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면접
- 준 비 물 _ 가사, 장삼, 승려증
- 전형일시 _ 2016년 1월 28일(음력 12월 19일) 오후 2시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학과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전문습의사
(4) 교육원 연수교육비 지원
(5) 해외 연수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 보현율원율주 명성 원감 일진



※ 승가대학 신입생, 보현율원 및 한문불전대학원 신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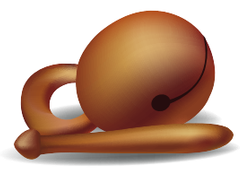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4×4.9) 4만원, 1Box (8.8×4.9)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이니라.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에 충만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되 어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 본생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자연산 상황버섯
면역력 증진
생명 연장력
뛰어난 항암력
(지리산 심마니)
010-8687-9003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운이 나쁜데 어디 운을 고칠 부적 없습니까?
"치우천왕 정담" 검색
농협 351-0527-5845-43
* 내 마음의절 *
010-4500-8234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빙의퇴마,천병,
신병,우울증,병명없이 아
프고 우환 고생하시는분.
스님, 보살 상담환영
금강사 010-5152-1222

명리첩경의 저자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 분
010-3054-3345
전화상담

사찰 소임 원합니다
게송,법문,범패,불교의식
전문 / 함께 큰불사 이룰
수 있는 원력! / 땅이나 건
물 저렴하게 보시하실 분.
큰 인연 연락주세요.
곡차,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10-2553-8827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579-6444
051-721-04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346-2328
054-636-232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신채 사용 불가,
출 퇴근, 숙식 가능
(경기도 남양주시)
010-6358-3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바라 밀경 주석서를 큰 글자로 연로하신 분이 잘 볼 수 있게 발간 하고자 합니다. 출판에 동참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10-6505-8004
현황 법려 합장

● 신통력을 손에 잡는 방법을 스님에게만 일러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 032)664-0048 / 011-741-0867

빙의(퇴마) 전수해 드립니다 (최면)
– 빙의된 본인 입으로 어떤 영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몸에서어떤 일을 했는지 등 명확하게 찾아 내어서 천도합니다. (몸이 아닌 집안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
– 이유없이 아픈 몸, 분노, 불안 등을 가진 분이나 멀쩡한 분들도 누구나 빙의 되어 있습니다.
절,포교당,점집 운영시 꼭 필요함(그외 다수 전수)
만경사 051)757-7925. 010-3156-6414 운유 합장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5121-33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 문 둔 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출장강의 가능,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3개월 사주,관상 대모집 (월 10만)
원격상담문의 010-5801-2203 부천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젠 풍수도 과학적이고 정통해야 한다
◆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읽어내며
◆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新 풍수원리
太極山水穴脈地理
※ 태극서린 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며 집안이 흥성한다!!
◆ 발복흥성 혈맥잡는 비술득통!!
◆ 명당은 땅속 혈맥 갖춰야 진터!!
음 · 양터가 길흉화복 좌우한다!
▶ 족집게 터감정 진혈점지 알선상담 ◀
(절터 사업장 주택지 묘지 납골 수목장 등)
※ 비술 전수자 모집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덕숭산인 지천공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분노를 정복하는 것은 겸손과 자비요,
악한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착함과
지혜라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아기자기 예쁜 사찰 ◀

- 위치 : 경북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377평
- 건물 : 목조법당(25평), 요사채(50평)
-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 가액 : 6억 5천만원
- **출장비 받지 않음**

051-863-8522 / 010-3560-8522

▶ 바닷가 시원하게 트인 조망권 ◀

- 위치 : 거제도 시내 롯데캐슬APT 부근
- 총부지 : 1308㎡ (395.67평)
- 건물 : 법당 20여평 및 요사채 50여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전, 월세 가능함**

주인직 010-9906-3631 혜관

※ 사찰 전문 30년 역사 전국 2,000여개 사찰 보유 ※

사찰전문 연산 공인중개사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 2로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cafe.daum.net/temple0 연산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단양 사찰 안내
- 법당 90㎡, 요사채180㎡, 토지 890㎡
- 조용한 마을 끝사찰
- 양도가 : 1억 3천만원(전세가능 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대지: 100평
◎ 법당: 30평
◎ 요사: 60평
◎ 양도: 17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1300평
◎ 법당: 50평
◎ 요사: 100평
◎ 양도: 1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차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중랑구(우림시장)사거리
- 2층, 약 30평
- 삼존불, 신중, 집기
- 가액 : 보증금 2,000에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가격절충)

010-5387-67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주 IC부근 사찰
- 토지 6,100㎡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4억
- 마을뒷편산쪽 안정된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순천시 상사면 와룡길 55-105 순천역에서 20분거리
- 해돋이 명소, 해발 350미터
- 종교부지로 허가 나왔음 (분할도 가능)
- 부지 1050평, 건물 60평
- 가액:4억

주인직 010-3228-978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8평, 목조건물, 남향
- 요사채 : 방2, 공양간, 화장실
- 평수 157평
- 가액 : 2억 9천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1,420평, 법당 20평, 관음전, 종각
- 요사채, 공양간, 창고, 차고, 외부화장실 등등
- 대형주차장 등
- 스님 건강상 문제로
- 가액 : 3억 3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 20평, 평수 :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암자(급)안내

- 위치 : 합천 해인사 위쪽 도솔암
- 기도처 155평
- 요사채 1동 법당포함
- 도로포장 잘되었음
- 임산 배수로 경관이 좋고 800고지에 차량출입가능
- 심야전기, 지하수시설
- 가액 : 1억 2천

010-3900-3050

사찰 대웅전

- 건평 24평
- 내오포 외삼포

해채 복원하실 인연 찾습니다.

010-4896-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 평수 : 40평, 3층 건물중 2층
- 쑥뜸, 창고 6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5451-6056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20분 거리 호남선 옥과 IC 5키로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2천평
- 기암괴석, 사자앙천혈
- 조립식건물 3동, 3존불 봉안
- 적송나무숲 암자, 노천약사석불
- 가액 : 3억 5천
- 장난전화 하지 합시다

010-8224-16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교통 편리함)
- 대지 : 198평, 건물 : 2층 건물
- 인법당 : 약20평(삼존불, 나한100분, 천수관음, 산신)
- 요사채 : 30평(방2, 거실, 목욕탕, 공양간)
- 대중공양간 : 약15평, 외부창고 2칸
- 탁트인 전망, 기가 모이는 동남향
- 가액 : 일억팔천오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96-7737
041-733-133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 2층 건물 73평, 법당, 방3, 삼존불
- 탱화3점, 에어컨 2대,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6638-2235
010-3884-23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90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찰터(급)안내

- 위치:경북영천신녕 1075번지외5필지
- 등기상 3천평이나 실평수4천여평임
- 가옥 60여평 한동
- 현장 대형차 진입
- 사계절 계곡물 흐름
- 가액 : 4억(절충가)

010-6253-310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건물중 3층
- 법당 27평,삼존불
- 주차 20대가능
- 몸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502-2618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량진역에서 10분 거리
- 경관 아주 좋음
- 대지 230평, 건평 75평(법당)
- 큰방4개, 다실1개 거실 및 주방(현대식) 심야전기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비품대 2,500만원

010-3547-1766

암 자 안 내

- 위치 :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 대지 전 합 1,380평
- 건 약 50평, 태양광 온수
- 사진 전송가능
- 상담후 저렴하게 드림니다
- 가액 : 1억 3,000만원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기적의 명상치료

비디아말라 버치 · 대니 펜맨(명상 지도자)

〈5〉 4주차: 통증 심장부로 고개를 돌려라

잠시 멈춰 허용하고, 두고, 바라보라



마음챙김의 '받아들임'

영국의 등산가 조지 말로리(George Mallory)가 1924년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자가 그의 등반 팀에게 그 운명적인 날에 왜 정상 공격을 계속해서 감행했는지 물어보았다.

"삶의 대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한 생존자의 대답이었다.

이 한 문장이 인간의 조건을 그 어떤 것보다 잘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잠시 머물면서 이것저것 씁쓸하고도 달콤한 감정을 많이 겪다가 결국에는 떠난다.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잊고 산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가능한 통증, 괴로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항상 때를 놓친다. 이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크고도 잘 보이지 않는 대가가 따른다. 인생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피하려 들면 통증과 괴로움이 더욱 커지고, 마음이 닫히면서 그 뒤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만 남을 뿐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도 함께 무뎌져 버릴 위험을 떠안게 된다. 가슴 사무치는 아름다움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다.

통증이든, 질병이든, 스트레스든,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것을 멀리 밀쳐 내려 애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속성이다. 밀쳐 내는 방법 또한 다양하기 그지없다. 기존에 실패했던 해결책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끝없이 매달려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무시하려 들거나 다른데 정신을 팔아서 그것을 묻어 버리려고도 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런 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기력이 다하거나 직면한 어려움에 정말로 압도당해 버린다. 이런 갈림길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척 살거나(그리하여 점점 더 황폐화된 삶을 살거나), 자기 자신 및 세계와 다르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중 많은 기사, 특히 만성 통증이나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자신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도 없이 살아야한다는 말인가? 마음챙김 받아들임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챙김이 불러일으키는 온전한 의식에서 오는 받아들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동적 형태의 받아들임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마음챙김의 맥락에서 보면 받아들임이란 그저 잠시 멈추는 것이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명확하게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존재 방식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끌어안는 것이다.

마음챙김 받아들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타인과 자기 주변 세상을 향한 연민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실패자다, 나약하다, 무능력하다 생각하며 공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자기가 못나 이런 역경이 생겼다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마음챙김 받아들임은 당신이 모든 잘못, 약점, 고통과 함께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존재하게 허락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 괴로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민 어린 받아들임은 통증을 극적으로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회피할수록 괴로움 확장
아름다움에도 무감각해져
'마음챙김' 통해 받아들여야
버티는 것 아닌 끌어안는 것

받아들임

브레스워크 호흡법 프로그램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괴로움의 두 가지 요소, 즉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을 구분하는 것이다. 1차 괴로움은 어느 순간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실제의 불쾌한 감각이다. 2차 괴로움은 당신이 이런 경험에 저항하며 반사적으로 행동할 때 일어나는 추가적 통증이다. 2차 괴로움은 몸에서 느끼는 실제의 통각보다 더 큰 고통의 원천일 때가 많다. 그리고 당신이 몸소 배우고 있듯이 마음챙김 수련은 1차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2차 괴로움을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로써 당신은 괴로움을 훨씬 덜어 내고 살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1차 괴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2차 괴로움)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4주차 프로그램은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고, 날것 그대로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감각들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호흡의 진정 효과를 경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던 반사적 행동들을 내려놓는 법을 수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은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의 차이를 내면 깊숙한 원초적 수준에서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마음챙김은 양 극단 사이에 놓인 중용의 길이라 할 수 있다. 한 극단에는 자신의 느낌을 억누르는 행위가 있다. 두려움이나 회피를 통해 그런 느낌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른 극단에는 자신의 경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반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런 느낌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행위가 있다.

마음챙김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괴로움에 반사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거기에 저항할 필요도 없음을 가르쳐 준다. 2차 괴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반사적 행동과 저항이다. 따라서 당신이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대부분, 어쩌면 모두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처음 이 연민 어린 받아들임 명상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몇 년에 걸쳐 축적되었던 두려움과 걱정이 둑 무너지듯 한 번에 풀려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 조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불쾌한 감각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할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증의 가장자리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다 만약 느낌이 너무 강렬해지면 의식을 다른 곳에 집중하면 된다. 호흡 같은 것에 집중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불쾌한 감각을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을 잠시 다른 데로 돌리는 것뿐이다. 성급히 되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돌아와 보면 그 불쾌함이 상당히 줄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것이다.

페이스조절 프로그램: 일기분석

페이스 조절은 주로 통증과 질병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만성 스트레스에도 역시 효과적이다. 만성 스트레스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라면 하루의 일과를 페이스 조절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긴장이 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도와주고, 이로써 스트레스를 차츰 진정시켜 준다.

첫째 단계는 일기에 기록한 정보를 분석표의 세 칸에 옮겨 적는 것이다(부록에 분석표가 나와 있다. 브레스워크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분석표의 '+' 칸에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혹은 당신이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던 다른 증상을 유발했던 활동을 옮겨 적는다. '0' 칸에는 별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았던 활동을 적는다. 그리고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줄여 주었던 활동은 '-' 칸에 옮긴다. 정보를 옮겨 적을 때는 각각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도 함께 적자.

정보를 분석표에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모르고 있던 패턴이 드러날지 모른다. 어쩌면 즉각적으로 당신의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확 들어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앉는 것은 상태를 악화시키는 반면, 누워 있으면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이는 통증이나 증상의 악화를 피하려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좀처럼 쉬는 법이 없다 보니 일기장 한 장에 미처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탈진하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휴식을 많이 취해야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휴식 시간도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날짜별로 쉬는 시간이 들쭉날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쉬는 시간을 골고루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라도 실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페이스 조절하기가 어렵다. 페이스 조절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 당신이 완전히 건강하고, 통증도 없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페이스를 조절해서 자신의 상황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과 다시 과열과 파열 주기로 되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환상을 좇아 살아가려고 해 봤자 결국은 슬픔으로 이어질 뿐이다. 당신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당신이 잃어버린 신체적 자유와 건강, 에너지 등에 대해 한번은 크게 비통함을 겪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아주 가혹하고 부정적인 접근 방식 같지만, 이러한 연민 어린 받아들임이 자신의 삶을 최대로 누릴 수 있게 할 기반이 되어 준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처지와 좀 더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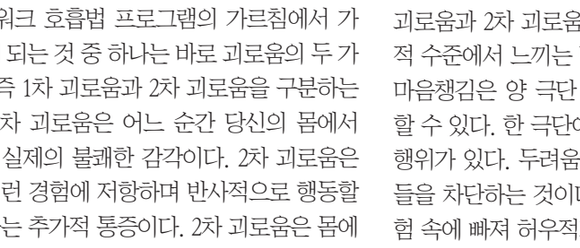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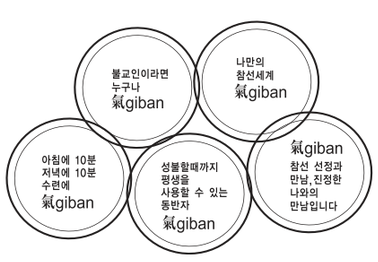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교실에서 바른 마음 꽃 피워요



수업시간에는 집중하고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II will stay focused in the classroom and won't interrupt others.

마리 퀴리(Marie Curie, 1867~1934년)는 폴란드 출신의 여성 과학자로 1903년 노벨물리학상, 1911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마리 퀴리는 어려서부터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책만 손에 잡으면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언니들이 책만 읽는 마리를 놀려주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마리 뒤에 의자를 쌓아둔 것입니다. 마리가 일어서면 쌓아둔 의자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질 테고 마리는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마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들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책을 보며 곧장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바보 소리를 들었던 뉴턴도 집중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도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한 줄기 새벽빛이 들어와 점차 밝아지면서 온통 환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새벽빛이라는 작은 실마리를 갖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는 환한 결론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집중력이 있으면 우리도 작은 것에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좀이 쑤시고 바깥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시간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고 공부도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책만 펼쳐놓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는 일도 좋고 취미활동도 좋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쌓다보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도 차츰 늘려갈 수 있습니다.

* 어린이들에게 집중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실은 친구와 함께 쓰는 곳이므로 정리 정돈을 잘하겠어요

My classroom is for my friends and me, so I won't make big me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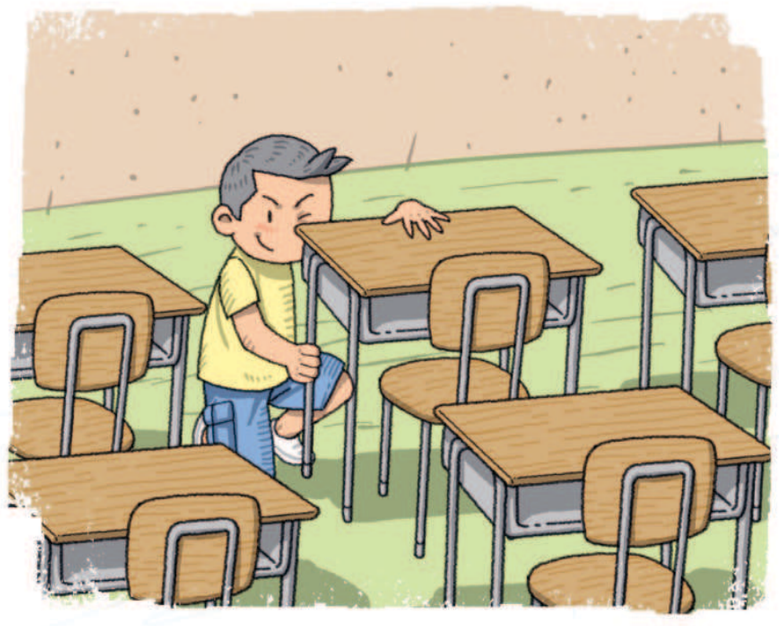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년)는 미국의 34대 대통령(1953~1961년)을 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의 최고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했으며,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휴전협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에 정리 정돈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책상을 네 곳으로 나누어서 당장 버릴 서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서류, 급하게 처리할 서류, 천천히 처리해도 되는 서류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을 '아이젠하워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법칙대로 정리를 하면 처리 순서를 지킬 수 있었고 깜빡 잊어버릴 일도 없습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1961~) 대통령도 책상에 전화기 한 대와 서류 몇 장만 놓아 둘 정도로 정리 정돈을 잘한다고 합니다.

정리 정돈을 잘하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을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에 학용품을 아무렇게나 넣어두지 말고 정리 정돈을 잘하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쓰는 물건은 꼭 제 자리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은 정리 정돈을 잘하는 편인가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 정리 정돈을 잘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리 정돈을 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책상의 입장에서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충고를 해 보세요.
* 학교의 물건을 낭비하거나 함부로 쓰면 무엇이 나쁠까요?
* 친구들이 공동의 물건을 아껴 쓸 수 있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모두가 함께 쓰는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어요

I will be gentle on school supplies because everyone shares them.

천하의 심술쟁이에 욕심쟁이인 놀부는 부자가 된 동생네 집에 갔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화초장. 문짝에 화초 무늬를 곱게 붙인 장롱이었습니다.

"흥부야, 저기에 뭐가 들었냐?"

"금은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형님."

금은보화 소리에 놀부의 욕심보가 재빨리 반응합니다.

"저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드려야죠, 형님. 제가 내일 하인을 시켜 보낼 테니 염려마세요."

그 말을 곧이들을 놀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뜸 소리부터 지릅니다.

"이런 도적놈을 봤나. 화초장에 든 금은보화는 빼버리고 껍데기만 보내려고 그러지? 흉악한 놈 같으니라고. 썩 내놔라! 내가 지고 갈란다."

뻔뻔스러운 놀부입니다. 이런 놀부 태도를 일러서 사람들은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원래 내 것'이라며 비웃습니다.

우리는 놀부와 달라서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네 것은 탐내지 않고 내 것은 아낍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네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한 '우리의 것'이 아주 많습니다. 책상, 의자, 사물함부터 시작해 텔레비전, 컴퓨터, 심지어 화장실의 수돗물까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것'은 소중하게 아끼면서 우리의 것은 함부로 대합니다. 학교 물건의 절반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불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학교에 있는 우리의 물건을 내 것만큼 아껴주기 바랍니다. 〈끝〉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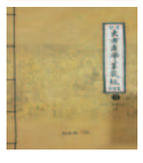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보시·선행 실천, 어렵지 않아요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장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든 사회를 견디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선행과 자비 나눔이 때때로 커다란 효과로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때가 있다.

2015년 강남의 한 지하철 대여 사물함에 '달콤창고'가 문을 열었다. 공간 설치의 취지를 설명한 "초코렛과 사탕을 넣어 놓았으니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살기 힘든 세상, 달콤한 과자를 먹고 힘을 내라"는 문구는 'SNS 어라운드'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일상에 지친 누군가를 위한 자그마한 선물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노릇을 하고 있다.

고무적인 점은 대여비 문제로 문을 닫는 듯하더니 오히려 어려운 사정이 알려져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확대 중이라는 사실이다.

2006년 한국의 명동 길거리에서 벌어진 캠페인도 기억에 남는다. '프리 허그(Free Hug)'라는 피켓을 든 청년이 자신에게 포옹을 청해오는 불특정 사람들을 그냥 안아준 것이다. 포옹을 통해 파편화된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하자는 취지로 2001년 시작된 '프리 허그 캠페인'이 한국에 상륙한 것이었는데 멋쩍어하면서도 등을 토닥인 후 뿌듯함에 환한 미소를 짓던 이들의 표정이 지금도 미소를 머금게 한다.

그 뒤로 여러 시민 사회 단체에서 조금 변형된, 하지만 취지를 잃지 않은 다양한 '안아주기 운동'을 지금 까지도 해오고 있다.

1989년 3월 월간 해인지에 실린 '따주기' 성훈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가능한 자비 나눔 방법을 몸소 실천한 좋은 사례이다. "스님은 바늘 하나로 손가락을 따줌으로써" 많은 이들의 불편한 몸을 호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시 전국적으로 천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주기 행을 실천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었다. 그 뜻은 스님이 열반한 이후에도 이어져 현재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비 나눔 즉 보시의 정신을 실천한 분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사찰입구에서 흔희 볼 수 있는 배가 불룩한 포대화상도 그 중에 한 분이다. 넉넉한 몸집에 항상 웃는 얼굴인 스님은 지팡이 끝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다녔다.

그 자루 속에는 장난감, 과자, 엿 등이 담겨 있었고 마을을 돌면 아이들이 모여들어 한바탕 선물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 포대화상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 곳 이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둘러보게 된다.

지혜로운 나눔을 뜻하는 보시의 종류는 분류 방식에 따라 이종시(二種施)·삼시(三施)·팔종시 등으로 나눈다. 이 중 삼시는 재시와 법시와 무외시(無畏施)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시(飮食施), 재물을 나누어 주는 진보시(珍寶施), 정법(正法)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신명시(身命施) 등의 세 종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시의 종류를 적용해 보면, '달콤창고'와 포대화상의 경우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시'를 통해 자애와 연민의 무한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이고 성훈스님과 '안아주기'는 무재칠시 중에 몸으로 베푸는 신시(身施)를 통해 이웃들을 돕고 있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자비 나눔 방법이라는 것이다.

2016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 속에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된다. 해달라는 말의 풍년으로 불보살님의 귀가 따갑다는 우스개도 들린다. 찾아 쓰려면 저금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쌓은 것 없이 출금하려니 속만 상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 나눔, 즉 보시 계좌에 자그마한 공덕부터 쌓아나갔으면 좋겠다. 감당할 수 없는 퍼줌이 아니라 자그마한 나눔이 주변에 큰 행복을 선사하는 '나비효과' 같은 그런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는 한 해를 우리 모두 만들어 보자.

발언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논란

구랍 28일 한·일 정부가 도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협상안'에 대해 나눔의집 등 종교·시민사회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협상안에 법적 배상이 빠진 것도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불교계 단체의 성명과 의견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피해자 빠진 정치적 야합"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구랍 28일 한일 외교장관급 긴급회담은 피해 당사자가 빠진 정치적 야합이다.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들었다. 회담 계획이 거론되고, 심지어 협상안이 타결됐을 때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정부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권 문제고, 개인의 청구권 문제다. 한국 정부는 당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협상안은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마저 무력화시키는 '폭고'다. 국민 정서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인권 문제'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협상안을 인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피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합의문이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안 도출에서 일본 정부에 완전히 패했다. "우리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며 울먹이는 할머니들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법적 책임없는 사과도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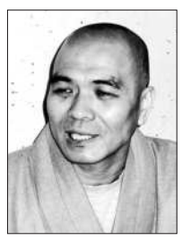


유지원
불시넷 운영위원장

이번 합의는 사과의 주체가 내각총리대신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총리의 직접 사과가 아닌 대독사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번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과 국민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간 제시되었던 합의안에도 미치지 못한 외교적 담합이자 졸속합의다.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곳곳에 평화의소녀상이 세워지는 등 피해자와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및 관련단체와 사전 상의 없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월권적인 단어들을 써가며 밝힌 이번 합의가 양국의 합의문조차 없이 기자회견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불과 몇 일전까지도 역대 정부의 입장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한국 정부가 왜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돌연 퍼주기식 합의를 했는지 의아하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사죄의 필수적인 요소인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인정과 배상, 후속조치 등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어 진심어린 사죄라 보기 어렵다.

한일 합의 전면 재검토돼야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이번 합의는 총리에 의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며 직접적인 사과 부재, 향후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모호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노력 훼손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합의 내용 중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해 한국 정부가 향후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부 스스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외교의 고립을 자초하였다.

부디 1965년 한일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 한일외교장관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면밀히 살펴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등 신중한 외교적 행보를 보일 것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社說

2016년을 통일 '원년의 해'로

남북 불교계가 병신(丙申)년 새해를 앞두고 서로에게 신년 인사를 건넸다는 소식이다.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구랍 30일 서신을 통해 '2016 새해인사'를 주고받았다. 매년 이뤄지는 일이지만 반가운 관례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민족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 교류와 연대가 더욱 활발해지는 새해가 되도록 서로 합심하자"고 당부했고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은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질 새해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교도 사이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은 남북불교도 사이에 연대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높아진 뜻 깊은 한 해이기도 했다. 조계종과 조불련은 지난해 3월 중국 심양에서 남북대표자회담을 열었고, 10월 금강산 신계사 8주년 공동법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불교계는 화쟁사상을 통한 통일 아젠다를 담은 '불교통일선언'을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반목한지 어느덧 70년이 넘었다. 남북교류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멈추기도 재개되기도 한다.

이제는 불교계 차원에서도 독자적 교류협력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북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주장한대로 불교문화유적 공동발굴과 보존사업, 평양 불교문화원과 의료원 및 한의대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올해는 남북이 통일 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는 원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남북 불교계도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지역민 끌어안는 봉은사의 변신

2016년 새해벽두 서울 봉은사가 야간 개방을 시작하며 대변신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구랍 29일 다래헌서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달라지는 봉은사의 면면을 알렸다.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민들에게 열린 사찰로 한층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봉은사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야간 개방이다. 진여문, 법왕루, 미륵대불, 범종각 등 7개 전각에 조명을 설치해 밤 12시까지 문을 개방할 예정이다. '빛의 봉은사' 야간 개방은 해마다 증가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을 겨냥한 조치이다. 코엑스역과 봉은사역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봉은사를 찾는 지역주민들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화려한 천년 고찰의 밤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내실을 기하는 변화도 눈길을 끈다. 법회를 연령과 계층에 맞게 다양화 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불광보조 일요법회', 신도회 중심의 '봉은법회',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계층법회' 등이 그것이다. 교육 도량으로서의 발전도 꾀한다. 종단 기본교육과정인 '기초학당'을 전문교육과정인 '불교대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불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불교학 가운데 선학과를 신설, 전문 불교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남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의 새해 변신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雀)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잿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잿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날마다 첫 매상은 이웃에게…

사단법인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 1983년 설립한 비영리 봉사단체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 회장을 맡아 불교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2011년 11월 미소원을 개원하고 현재 부산 오륜소년원 멘토링 사업, 법무부 부산구치소 재소자 교화, 결핵환자 살리기, 제3세계 우물 파기, 독거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반찬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년 법무부 장관상, 2009년 보건 복지부 장관상, 2012년 대한민국 국민나눔대상 복지부장관상, 2014년 부산시 자원봉사 금배지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터전이 된 부산의 곳곳에는 한국인의 삶 속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부산의 3대 재래시장인 진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은 전쟁 후 억척스럽게 살아갔던 흔적이 남아있다. 범일동에 모여 있는 3대 시장은 하루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인들의 희망이었고,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의 직장이었으며,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의 집이었다.

1970년 후반, 3대 시장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다. 바로 미소원 이사장 장유정 불자(60)다. 처음 그녀가 내민 손은 빈손이었다. 그녀는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으러 다녔다. 시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1000원씩 후원금을 받아 자신들 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봤다. 어려울수록 실천한 나눔 활동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란 지론에서 였다. 나눔의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3대 시장 상인들을 이끈 장유정 이사장을 구랍 23일 미소원 법당에서 만났다.

나눔은 살아가는 힘

장유정 이사장의 어릴 적 삶은 너무나 고단했다. 6남매 중 첫째인 장 이사장은 1972년 중학교 3학년 때 16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몸이 편치 않았던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였다. 장 이사장은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시장으로 나서야 했다.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릴 시간도 없이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25세가 되어 드디어 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아가며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장 이사장은 나눔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들은 방송 '홈런 출발 김동엽' 이란 방송 사연 때문이라고 했다. 6 · 25이후 단칸방에 살던 한 가족이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 한 사연을 듣고 가슴이 하루 종일 두근거렸다고 했다.

"단칸방에 살면서 자녀들이 공부방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사과 상자 박스를 가져와 용돈이 생길 때마다 그 박스에 넣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란 자녀들은 그 박스에 돈을 넣을 때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시장에서 옷을 팔던 장 이사장은 아침 첫 판매의 수익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루 매상의 10분의 1을 기부하며 액수를 늘려갔다. 그렇게 매일 기부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서 하기 보다는 주위에 있는 도반들과 함께 했으면 했다. 그 후 장 이사장은 시장을 돌며 그동안 쌓은 인연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부금을 모아 후원을 하던 중 부산 미룡사 정각 스님이 운영하는 자비원 봉사회를 알게 됐어요. 그 때는 불교계에 봉사단체가 많지 않았던 시기여서 너무나 신선했죠."

자비원을 방문 했을 당시 그곳의 환경은 열악했다.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곳은 너무나 많았다. 자비원과 발맞춰 장유정 이사장은 시장에서 도반들과 함께 '자비의 종소리' 라는 후원단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자비원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후원을 자처했다.

고아들이 머물던 성우원, 재활원, 양로원 곳곳을 다니며 후원 활동을 자비원과 함께 펼치던 장 이사장은 1983년 자비원 봉사회 후원회 회장을 맡아 3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지원을 하게 된다.

자비의 종소리, 곳곳에 자비 온정으로

장유정 이사장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후원회 '자비의 종소리' 는 매달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5000원, 10000원씩 시대에 따라 금액도 점차 늘려갔고 회원도 500여명에 이르게 됐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실명 위기의 환자를 후원하고 국립마산결핵병원을 방문해 가족이 없는 환우를 위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금 지급, 독거어르신 반찬지원

단칸방 가족, 타인 돕기 보며 발심
옷가게 판매 수익 일부, 기부 시작
주변 설득해 '자비의 종소리' 결성
30년 동안 500여 명 나눔실천 이끌어

2011년 미소원 개원, 전문상담 진행
"봉사 함께하는 도반 있어 행복해요"

등 활동도 펼쳤다. 또 정토회와 연계해 인도 결핵환자 치료에도 나섰다.

"4년에 걸쳐 인도 결핵환자 108명을 살렸습니다. 그 때 당시 우리나라 돈 15만원이면 그들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후 3년 만에 다시 108명을 살렸고 지난해 3차로 108명을 살렸습니다." 총 324명이였다.

그들의 후원활동은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구입에 자비의 종소리 회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던 물건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의류, 미역, 신발, 양말 등 각종 물건들이 바자회에 나왔다.

"장애인들은 밖에 외출하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장애인 시설에 컴퓨터를 넣어주기 위해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비의 종소리 후원모금 활동과 함께 장 이사장은 봉축일마다 '조방연등회' 를 결성하고 범일동 곳곳을 연등으로 가득 채우고 법회를 열었다. 당시 성우원 어린이들의 수화공연 및 다양한 신행활동을 이끌기도 했다. 3대 시장은 연등이 화려하게 걸려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으며 봉축일 때는 시장 상인들이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축하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도반의 인연이 남편 잃은 슬픔 달래

이런 도반들의 인연은 장 이사장의 개인적인 아픔도 치유했다. 장 이사장은 6남매의 뒷바라지를 하던 1979년 결혼을 했다.

"남편이 좀 몸이 약하고 천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도 하며 아이들도 낳고 잘 키우고 살았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1994년 7월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은 아침이 늦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장 이사장은 준비도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39세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장 이사장은 매일 밤, 일을 끝내고 나면 남편을 묻은 통도사 삼덕공원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무덤 앞에서 108배를 하고 금강경을 읽었다. 새벽 두시 까지 통도사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49일을 보냈다.

"그 때 도반들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에게 1000원씩 주머니를 털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매일 마수(하루 장사 시작 후 첫 수입)를 내밀고 하던 그들이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장 이사장의 오랜 나눔 활동으로 시장에서 만난 인연들은 도반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용기와 격려는 제가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니 어느새 제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만 있더군요. 인덕이 있다는 말을 평상시에 자주 듣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눔을 실천하자며 그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했을 때 함께 뜻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제 인생의 모습과 환경은 모두 그 조건에 맞춰 바뀌어있는 것이죠."

미소원 개원, 신행과 봉사를 하나로

2011년 11월 11일, 부산을 대표하는 세 시장의 한가운데 미소원이 개원을 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그곳에 이사장과 평생을 함께한 도반들이 모였다.

"40대였던 그분들이 이제는 70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분들은 함께하며 봉사하시고 마음을 내어주십니다. 이곳 미소원은 그분들이 주인이며 그분들이 쉬는 곳이며 그분들의 안식처입니다."

장 이사장은 그분들을 위해 평생을 함께 기도할 도반으로 봉사하고 살아가기 위해 미소원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법당을 개원하던 당시 도반들이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며 회비를 모았던 것을 회



“봉사 · 신행은 둘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열린 미소원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모습. 미소원에는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성있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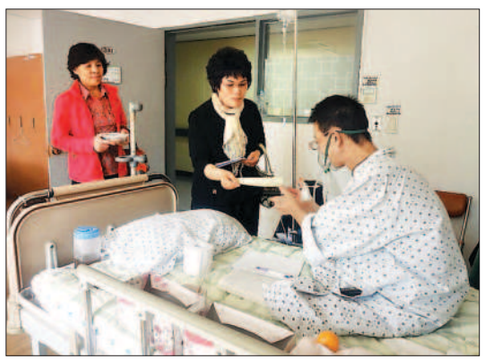
2015년 10월 부산구치소 교정 70주년 행사에서 표창장을 수여받는 장유정 이사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장 이사장은 구치소에서 정서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미소원 독거어르신 장수기원 사진촬영 행사 모습.



2015년 12월 24일 성탄절 기념 반찬봉사에 나서는 장유정 이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2012년 10월 국립마산병원 위문활동

상했다.

“한 달에 10만원, 혹은 5만원, 하루에 천원 등 각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팀을 구성해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법당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번은 폐지를 주워 모으시던 할머니가 법당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2만원을 내고 가신 일도 있었어요. 이 정성들을 모았으니 더욱 열심히 회향 할 일만 남았죠.”

개원 이후 미소원은 그동안 진행한 나눔 활동을 쉬지 않았다. 신심으로 어우러진 봉사의 마음에 전문성까지 갖추기 시작했다. 장 이사장은 2004년부터 준비한 사회복지사 공부에 상담공부까지 마쳤다. 이후 장 이사장은 전문 상담가로 나서고 있다.

또한 미소원에 있는 도반들도 함께 심리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25명의 회원들이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소년원,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결손가정 돕기, 제3세계 우물 파기, 한국JTS 북한 돕기, 말기암 환자 전화상담, 요양병원 목욕봉사, 무료 돋보기 행사, 변기 교체, 연료비 지원, 군부대 후원, 다문화 가정 자격증 취득 후원 까지 미소원의 활동과 손길은 끝이 없다. 특히 매주 목요일 독거 어르신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반찬 봉사는 위생, 건강, 정성까지 소문이 자자하다.

전법과 인재불사를 위해 나아갈 것

“앞으로 미소원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잊지 않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반들은 집에 결혼, 칠순 등 잔치가 있거나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회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눔이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이유를 나눔과 봉사에서 찾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도 이분들 덕분에 삶의 힘을 찾는 것이구요.”

향후 5년간 미소원 차기 구성원 모집
도반 자녀 모아 청년회 구성 · 훈련도
“전법활동 · 인재불사에 박차 가할 터”

장 이사장은 앞으로 미소원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법 활동과 인재 불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병원에 누워 있는 아픈 사람도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더군요. 방송과 신문의 힘이 굉장하니 말이에요. 어디서나 티비와 핸드폰, 신문을 접할 수 있잖아요. 불교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이사장은 앞으로 5년 동안 미소원을 이끌어 갈 차기 세대를 위한 구성원 모집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미소원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 팀을 구성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모아 청년회를 구성하고 이 미소원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훈련 할 계획입니다.”

장 이사장을 만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다. 동지를 지내고 하루 정도 지나서일까 어둠은 일찍 찾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법당으로 누군가 들어와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현재 미소원에서 매주 목요일 마다 어르신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김화숙 팀장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바로 그녀를 불러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둘의 눈빛은 신뢰와 따뜻함 그리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가득하다.

장유정 이사장을 바라보며 김화숙 팀장은 말한다. “미소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작은 돈으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큰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죠.”

장 이사장은 요리를 하다 다친 김 팀장의 손을 말없이 감싸 잡았다.

“도반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도반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복도에 걸린 미소원 간판 위에 글이 눈에 들어온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1번지 이곳은 미소원입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이미 웃음이 가득한 곳, 미소원. 그들의 행복 가득한 미소가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한다.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鐘이 얼어 깨먹기도 하지만…

을미년 한해가 저물고 병신년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해바닷가와 높은 명산에는 떠오르는 새 해를 맞이한다는 마음에 들떠 모여든 인파들이 가득하다.

조계사가 있는 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기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새해의 각오를 다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해를 맞는 풍경은 군부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좀 더 의미있게 한해를 보내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인지 군사찰에서도 ‘타종식’이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부대 지휘관과 예하부대의 지휘관들, 어떤 사찰은 민간 단체장들까지 어우러져 번갈아 종을 치며 한해를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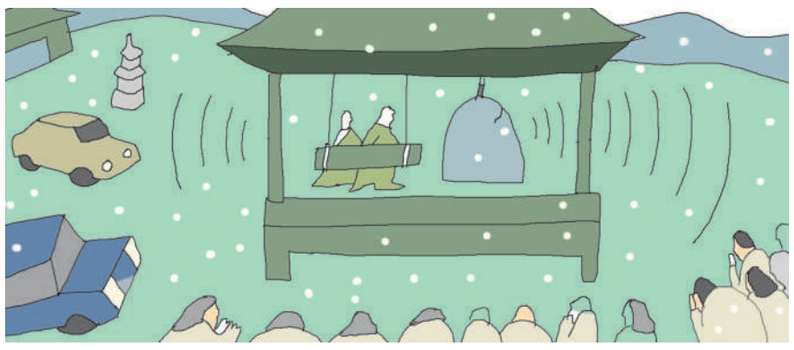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처럼, 중생의 마음속 번뇌를 깨우고 해탈에 이르게 하고자 사찰에서 울리는 범종소리는 이순간만큼은 많은 중생들의 염원을 담아 울린다. 이 타종식이 군 장병들에게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

평소에 스님들이나 군종병들만이 울릴 수 있던 법구인지라, 너도 나도 울려보고 싶어서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범종만큼은 울려보겠다며 타종식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가는 다른 신앙을 지닌 간부들도 있다.

범종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찰의 군승들은 연말이 되면 늘 타종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자도 복이 많아선지 가는 곳마다 범종이 있어서 해마다 타종식을 진행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법당에서 타종식을 할 때였는데, 이 사찰은 해발 700미터 고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가야산 해인사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이다. 매우 추운데 얼마나 추운 곳이냐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 시 눈발이 날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다.

타종식을 하던 날도 엄동설한이라는 말에 걸맞게 매우 추운 날이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두런두런 모여서 순서를 기다리고, 필자와 사단장님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타종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종을 치는데 소리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전에 없던 쇳소리와 ‘지지직’하는 잔향이 들리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종을 다루는 불자님께 연락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종이 깨졌다고 했다. 날씨도 추웠던데다 올바른 추운법을 모르는 이들이 힘껏 종을 울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 군법당의 종은 깨진 채로 자리를 잡고 몇 달뒤 임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다.

또 한 번은 청원사에서의 타종식이 문제였다. 철원도 화천과 같이 매우 추운 곳이다. 이미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후로는 종을 상하게 한 일은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조명이 말썽이었다. 전날까지 멀쩡히 잘 작동하던 가로등이 그날따라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손님들이 올 시간은 다 되었는데 조명은 켜질 기미도 보이질 않았다. 불빛이라고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준비한 모닥불이 전부인 상황이었다. ‘에이 모로가도 서울만 가자’라는 심정으로 참석한 불자들의 차들을 종각 주변으로 빙둘러 세웠다. 서너대의 차를 둘러세워놓고 일제히 전조등을 켰다. 자동차 조명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게 어정쩡하지만 사단의 타종식을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 타종식을 준비하며 조명부터 확인했다. 종도 깨먹고, 자동차 조명을 비춰가며 하기도 한 사연많은 타종식이지만, 한해를 맑은 종소리로 맞이하기 위해 한결같이 준비할 것이다.



박영민 군승법사(호국청원사)

봉 미산 천강 큰스님 법왕즉위 12주년 국태민안 평화대법회 행





불기 2559년 12월 24일(서기 2015년 12월 24일)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시 용호사 대법왕궁에서, 세계불교미래법왕청 주최, 교단용화불교 총무원 주관으로 미산 천강 큰스님 법왕즉위 12주년 기념 국태민안 평화대법회가 봉행되었다. 이 법회는 인류평화와 행복이 그리운 때 열리는 법회이니 만큼 불교계가 큰 관심을 갖는 행사였다. 이 법회에서는 450여 종단대표들이 201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천강 법왕을 추천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불교계가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복 70 주년 2015 제 1회 호국평화대상 시상식을 봉행(주최: 세계불교미래법왕청 호국평화위원회, 주관: 문화투데이) 하였으며 용호사 관내 불우이웃성금 전달 및 포교대상 시상식 , 표창장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 외에도 광복70주년 2015 제 1회 호국평화대상 수상자로는, 국회의원 오제세, 前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장군, 가수 박승희, 교단용화불교 이사장 유옥자, 불교법사사회교육원 법계고시 최고위원장 석보당, 세계불교 미래법왕청 충남 지청장 석법륜 등도 수여했다.

만찬 및 송년회가 이루어진 행사 2부에서는 가수 라성 등이 흥을 돋우었고, 참석한 대덕 큰스님 및 사부대중들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세계불교 미래 법왕청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여법하게 법회를 마쳤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대행 스님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친구, 자기 자신의 주인공 있죠? 그런 자기 자신의 주인공인 한마음이 항시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놀면서 그냥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하고 그런다면 그런 주인공도 그렇게 맡겨 놓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큰스님 이거 봐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말이요, 그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타격을 주는 거죠. 타격을 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후에 끌고 가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않고, 즉 말하자면 악으로 나간다든가 잘못된 도둑질로 나간다든가 이런다면 그 주인공은 도둑질하게 내버려 둬요. 열 번이고 다 내버려 둬서 인생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중간쯤 가다가 만들어 가지고선 다시 회전을 해서 나와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다시 회전을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지금 댁이 억소리야,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사람이 나쁘게만 나갈 수 있겠나? 때에 따라서 나쁜 생각도 해 보는 건 앞에 너무 고달픈 일이 생기고 그 참, 살려고 바둥거려도 안될 때 막 생각을 해 보는 수도 있지. 그러나 막생각이 들걸랑은 '주인공, 내가 이렇게 막생각을 하게 해서 되겠어?'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렇게 이끌고 가진 않아요. 나는 어저께부터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맡겨 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돼서 체험을 해라. 하나하나 체험을 하다 보면 자기는 완성된 참다운 인간이 돼서 훌륭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친구를 정말 그대로 서로 자문자답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생긴다." 이러는 겁니다. 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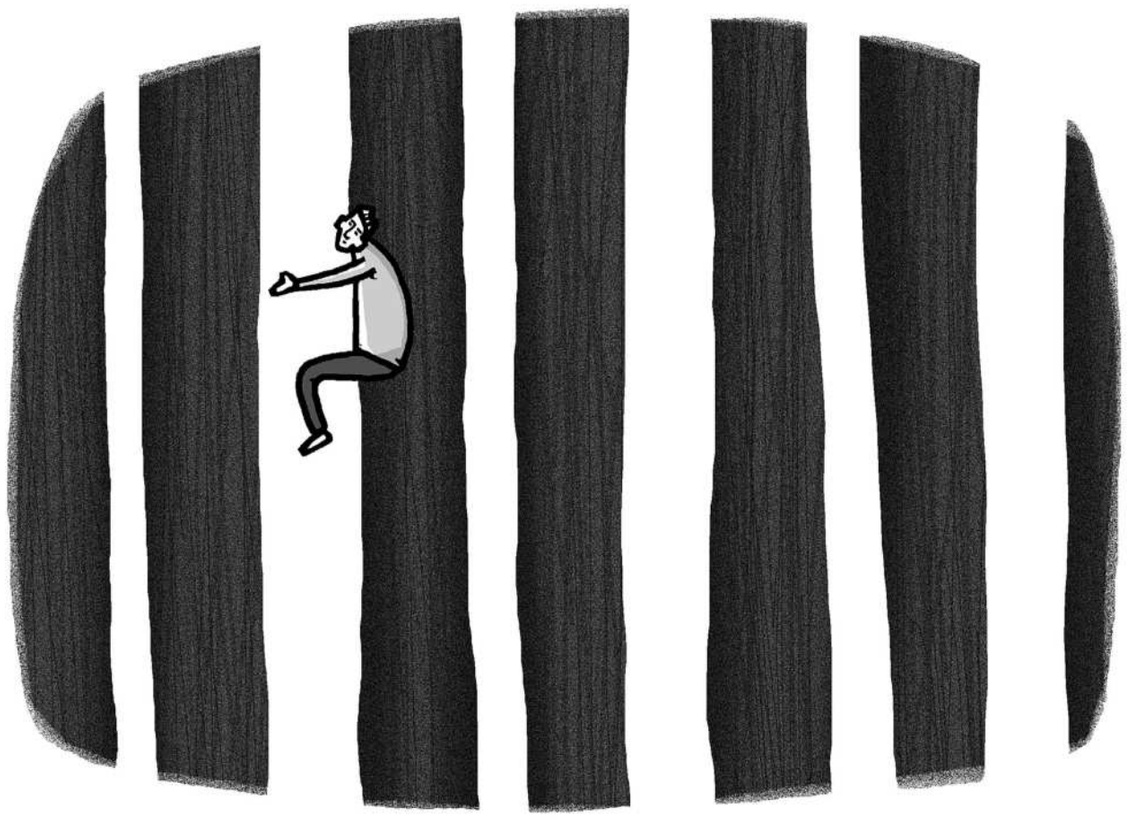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어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데려가지 못하고 영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이라는 게 각자 개개인이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한마음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은 한마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과 한마음이라는 게 다른 것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생물에는 불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바람, 모든 무생물 자체에도 불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아, 하나 대답하걸랑은 얘기해, 허허허. 두 번째 다시 얘기하고. 지금 한마음이 다 이런 것이 왜 한마음이냐? 영혼과 한마음이 다르냐, 똑같으냐? 인제 댁하고 지금 나 얘기했지? 얘기하는 순간은 전력이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야. 전기선이 붙은 거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마음이야. 그런데 그 말이 끊어지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영원한 내 친구는 각자 있어. 근데 그 각자 있는 그 자체가 전력과 같고 광력과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저거 할 땐 선이 탁 이어졌다가 또 그냥 너는 너 주인공이고 나는 나 주인공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것은 한마음이면서도 너는 너가 있고 나는 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도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이 전구에서만 그렇지, 전력은 다 똑같아.

질문자3(남) 그러니까 하나가 둘일 수도 있고 둘이 하나일 수 있다는 거….

큰스님 그렇지. 아니, 만 명일 수도 있지, 이 의식 자체가 이 영혼의 한생각을 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 마음 한생각에서 분리돼서 나가는 거를 그 천백억화신이 털구멍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대기권입니다. 내 이 원자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분자가, 분자가 화해서 그냥 이 두리를 다 하고 있거든.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생각이. 지금도 여기 앉아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집에 갔다 오너라 그러고 금방 집에 가서 집을 보는 생각과 동시에 회사 보는 생각을 해 봐. 회사도 금방 갔다 오고 집도 금방, 아이고, 일분일초도 안 걸려. 그것과 같은 거지. 그러니 어찌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니 나쁜 놈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내 주인공에 맡겨서 그 주인공에 내가 잠시, 만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착해져, 허허허. 나쁜 놈도 착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랬지?

질문자3(남) 그다음에는 미생물이든 모든 생물에는 불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에, 이런 카메라 같은 것에도 불심이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큰스님 댁이 불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돌아가. 왜 돌아가느냐? 이게 책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법상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인 거야, 즉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 이거를 항상 움죽거리게 만들지. 이것도 돌아가고 있어.

질문자3(남) 그러면, 우리 중생들 생각 자체가 멈췄을 때는 부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생물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처 아닙니까?

큰스님 무생물들은, 즉 말하자면 무정물, 무생물 이런 것이 전부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벌써 깎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둘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 이것도, 즉 말하자면 우리 몸과 같다 이거지. 우리 몸과 같아서 이것도 변하고 부서지고 우리 몸도 변하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마는 나무라는 근본은 그대로 있어. 이게 나무로 만들었지. 책상이라는 이름은 없어져도 이게 나무라는 이름은 영원해. 또요? 허허허.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자3(남)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스님이 내 주인공과 나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나하고 내 주인공인 나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그리고 그….

큰스님 댁의 생명하고, 생명 아시죠? 생명하고 마음 내는 거하고 둘입니까, 하납니까?

질문자3(남) 생명 그 자체는 그 육신이 돌아가는 거 그거하고 마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는 마음이나 원래…,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아니, 생명과 마음과, 마음 내면서 이러고 우리 사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게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지, 삼위일체로 돌아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있소? 그것이 한데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자체가 주인공이야. 주인이자 공했단 말이야. 맷돌인데, 이걸 맷돌로 칩시다. 심봉이 딱 아래 위 끼워졌어. 그런데 이 심봉이 끼워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맷돌이 돌아가는데 심봉이 먼저냐, 이 맷돌이 먼저냐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소? 맷돌하고 심봉하고 어떻게 둘이오? 하하하. 그러니까 심봉이자 맷돌이지.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응.

질문자3(남) 나를 완전한 주인공에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 완전한 주인공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거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맷돌 심봉 꽂힌 것처럼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다

☞ 25면에서 계속

큰스님 맷돌은 심봉을 믿어라 이거야. 심봉 때문에 맷돌이 돌아가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거든. 힘으로 인해서 그 맷돌이 돌아갈 뿐이지.

질문자3(남) 육신이 쇠해서 제 생명이 다했을 때요, 지금 나는 없어지고 영원한 나는 남아서 다시 후세까지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세에 남는 나와 지금의 삼위일체인 나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소? 업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질로만 살던 그 의식이, 내 요런 거 하나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물질로다 살던 세상에서는 깊은 물을 보면 빠져 죽을까 봐, 의식이 벌써 빠져 죽을까 봐 안 들어가죠? 불이 그냥 막 활활 오르는 데 못 들어가시죠? 타 죽을까 봐. 아이, 안 그래요? 대답해 봐요.

질문자3(남) 그렇죠. 하하하.

큰스님 예. 그리고 깡패 소굴이 있어서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 찔러 죽이는데, 이런 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질문자3(남) 예.

큰스님 예. 그래, 세 군데를 비유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산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의식은 남아 있어요. 살던 의식이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떡하느냐 하면, 죽어서 몸뚱이는 태웠든지 갖다 묻었든지 다 사대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의식이 남아 가지고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그냥 있고 그 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물을 보면 빠져 죽을까 봐 글쎄, 자긴 체도 없는데, 빠져 죽을 물건도 없는데 빠져 죽을까 봐 애를 쓰고 못 가는 거예요, 의식이. 허허. 또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산이 높으면 은산철벽이 높아서 못 가는 거예요, 높아서.

글쎄, 이 마음이 지금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그 의식이 지금 물질로만 살던 의식이라서 그냥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휴,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뱅뱅 도니까, 저 기독교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랬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빠져 죽을까 봐. 또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강을 건너서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은 자리에 도달하자 이러는데도 내가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또 불에 타 죽을까 봐 건너 갈 수가 있어야지. 산이 높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물질세계에서, 그 의식화된 거기에서 살면서도 그걸 벗어나서 살라 이겁니다. 그게 영원치 않다. 그러니 산 생각으로서 모든 걸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맡기라는 겁니다.

질문자4(여) 제가 한 시간에 천 번을 빌거든요. 좀 잘살았으면, 잘됐으면, 부자로 좀 살아 봤으면, 남같이 많이 좀 깨끗하게 잘해 가지고 잘 먹고 잘살아 봤으면, 이런 마음이 한 시간에 몇 번씩 그냥 돌거든요. 도는데 그것을 다 스님은 그냥 버리고 내 마음으로….

큰스님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수없이 돌아가는 게 이게 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됨이 없이 막 돌아간다 이거죠. 지금 우리 보살님은 그래도 딴 분보다도 좀 빠릅니다. 아주 여기 믿고 나가는 힘이 남보다는 유달리 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봤을 때에. 그러나 인식을 조금 잘못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만 완전히 잡아 준다면 이거는 대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인식을 잘해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서 큰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세우시라 이거죠.

한 시간에 몇 번이 아니라 일분일초에도 지구가 말입니다, 일분일초에 지구가 7바퀴 반씩 돌아가요. 어때요? 거짓말입니까? 조금 보탰습니까? 보태기도 했을는지 모르죠. 하하. 그러니 지금 사람 한생각이 변동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요 변덕 저 변덕 요 변덕 저 변덕 돌아가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변덕이 없으면,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일을 한다고 봅시다.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집었다 요거 집었다, 허허허, 그 대신 몸이 또 그렇게 요변덕을 떨어요. 아이, 보세요, 글쎄. 요거 집어서 요리로 오고 요거 집어서 요리로 오고,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요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요변덕을 하루 얼마씩 떱니까. 갔던 데 또 가고 갔던 데 또 가고, 이리로 발 디뎠다 저리로 발 디뎠다…. 아니, 상점에서 일할 때도 도섭을 부리지? 허허허. 그러니 이게 그냥 있는 겁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냥. 마음이 돌아가지 않으면 육체가 돌아가고 육체가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돌아가고, 온통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인공이죠.

질문자4(여) 주인공을 꼭 잡아야만….

큰스님 예. 자기 주인공이죠. 돌아가는데, 아까 맷돌 심봉 꽂힌 것처럼 인간에게도 뿌리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중심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중심이 없으면 미쳤다 그러고 목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봉이라 이거야. 중심이 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가, 비행기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차바퀴도 돌아가고. 사람도 중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 중심이 없다면 미친 것처럼 막 이러고 뭐,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해갈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몇 안 되는 이 식구라도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저 바쁘니까 난 못 나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기에 달려 있지 아니, 누가 자기를 꽁꽁 붙들어 매 놨습니까? 왜, 한 시간이든지 두 시간이든지 세 시간이든지 나올 때는 문을 닫고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문을 닫고 나와서 다녀가니까 그 시간덜 팔았던 양을 저녁에 다 벌충했다고 그럽디다. 네?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이거를 배우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할 때 물질이라는 거는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질을 내가 자꾸 좋아서 쫓아가도요, 안 되죠.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 그게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지금 세상이야. 이렇게 빠르게 살아야 돼. 지금은 몸뚱이가 쫓아다녀서 안 돼요. 앉아서 끌어들이는 세상이야. 끌어들이기도 하고, 앉아서 모든 일을 책정을 다 해서 주인공에 맡겨서 다 해 놓고는 몸뚱이는 그때 슬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야. 방편이야, 이거.

그래서 사람은 멋지게 살 수 있다. 나 이래도, 생기긴 못생기고 그래도 멋지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나만치 많지 못해. 왜? 나는 짊어지곤 안 다녀. 그러나 내가 쓸 때에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짊어지고 다니면 도둑놈 끓지, 강도 쫓아다닐 테지. 내가 왜, 골이 비었나, 그 짓을 하게? 하하하. 아, 나 쓸 때 딱딱 쓰면 되는 거야.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고, 하다못해 짐승이든지 뭐든지 다, 내 눈에 띄는 거, 어디 길에 가다가도…. 오늘도 술 먹고 그냥 해갈을 하는 사람 여기서 만났어. 그래서 내가 잔등이를 두들겨 줬더니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때 가면 인제 새사람이 될 때가 올 거라고요. 그 마음 한 생각 착, 그 뽀뽀해서 내보내는 그 마음이…. (녹음 안됨)

이런 시점에 앉아서 이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보고 있듯이, 세계를 보면 내가 그걸 보고서 현실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가고 판단하고 가고 책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걸 못 믿으면 당신네들이 모두 실험을 해 봐라 이거야. 해 보는 거 해 보지도 않고. 돈이 들어서 못해 볼 거야? 가난해서 못해 볼 거냐고? 누구든지 못났든 잘났든 마음공부 하는 건데 왜, 누구라고 못해? 기독교인이 돼서 못해, 가톨릭교인이 돼서 못해, 불교인이 돼서 못해? 나는 그런 거 가리지 않아.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배워라 이거지.

또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현실에 살면서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다는 거 아시죠?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산이 너무 높으면 내가 저 산은 높아서 못 간다 이럽니다. 그믐밤에 산꼭대기를,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려면 못 간다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이 몸뚱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 죽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의식 자체가 불을 보면 그냥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승 저승 가름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바로 불바퀴, 앞뒤 없는 가운데 뚫어진 불바퀴거든. 거기를 서슴없이 들랑거려야 죽은…. (녹음 안됨)

타 죽을까 봐 거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에 못 가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불에 못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의식이 글쎄, 살아서 그 관습이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그 관습을 떠나지 못해서 죽어서 영혼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돌다가 오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래요.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거기 맡기고 살아라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인식, 타 죽을까 봐 못 가는 인식,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인식, 또는 못 간다는 인식 또 구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릴까 봐 못 가는 의식, 그런 거를 다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라.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벌써 이 마음속에 그 의식들이 수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억이라고 한다면 16억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 내 마음이 벌써 편안해. 그리고 병이 없어져. 그리고 건강해. 그리고 그걸 알면 한 식구를 다 끌어 나갈 수 있어. 주인공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지. 생명이 어떻게 둘일 수 있나? 전력이 둘이 아니듯.

이 공부가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묘한 도린데, 뭐? 어떤 사람은 "우린 젊은데 뭐, 노인네들이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요래. 허허허. 그래서 "아이, 노인네만 죽고 너흰 안 죽니?" 그랬더니 "우리도 죽죠." 그래서 인생은 나와서 늙든지 젊든지 그저, 고정돼 있지 않고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어. 죽는다는 거, 어차피 사는 날까지 꼭 살다가 죽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 있으면서 그 모두를 다 놓고 열반을 봐야 된다.' 이 소리는 자유스럽게,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지, 네? 살아서 통달하는 것이 바로 열반이지, 무쇠를 갖다가 용광로에 다 넣어서 다시 재생을 시킨들 무쇠가 아니고 뭐겠소? 금으로 변하나? 금은 금대로 넣어서 내도 금이 되지만 무쇠는 무쇠대로 용광로에 넣어서 또 내도 무쇠는 무쇠야.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무쇠로 돌릴 수도 있고 금으로 돌릴 수도 있어. 이건 자유자재야.

이렇게 참 빛보다 더 빠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도 빛보다 더 빠르게야, 찰나찰나 그렇게 빠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아버지가 됐다가 형님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 이렇게 온통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게 인식이 안돼요? 생각이 안 돌아가느냐고, 모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얻어먹나? 하하하.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러니 공짜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도 공짜가 없는 것이고 천당에 가는 것도 공짜가 없어. 자기가 해 놓은 것대로 이 세상에 와,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그런 걸 하려면 좀 한 번 쓱 뒤집을 줄 알아야지. '야, 네놈들이 그렇게 한 거 네놈들이 알아서 해! 내 껍데기는 그저 너희 놈들이 살고 나왔다 들어갔다가 요리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오븐밖에 될 수가 없어. 나는 오븐 역할을 할 수밖엔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맡겨 버려야지, 네? 우리 총무 스님이 그만 하래. 하하하.

> 꼭 그렇게 맡겨 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돼서 체험을 해라.
> 하나하나 체험을 하다 보면 완성된 참다운 인간이 돼서
> 훌륭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23일 알래스카 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